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燕趙지방 문화의 淵源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曹岳鵬

2019年 2月

燕趙지방 문화의 淵源

指導教授 趙 成 植

曹 嶽 鵬

이論文을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提出함

2018年 12月

曹嶽鵬의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準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The Origin of Yanzhao Local Culture

Cao YuePeng

(Supervised by professor SheongShik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terature..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ongChum Lim

KyuHo Shim

Thesis director, SheongShik Cho Prof. of Literature

2018. 1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방법	4
II. 燕趙의 개황	5
1. 지역 명칭의 유래와 변이	5
2. 지역의 문화적 정의	6
III. 燕趙 문화 역사적 배경	8
1. 燕 문화의 형성 토대	8
2. 趙 문화의 형성 토대	13
IV. 燕趙 문화의 기원	17
1. 先燕문화	17
2. 先趙문화	19
V. 燕趙 문화의 형성과 建國	24
1. 燕 문화의 형성, 발전과 창건	24
2. 趙 문화의 형성, 발전과 창건	44
3. 燕趙 문화의 유적	60
VI. 결론	66

參考文獻

中文摘要

I. 서론

1. 연구 목적

지역 문화는 중국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지역 문화 연구는 우리가 중화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西周부터 秦漢시기의 黃河 유역과 長江 유역에서는 燕趙 문화 齊魯 문화, 楚 문화, 吳越 문화, 巴蜀 문화 등 지역 문화들이 형성되었다¹⁾. 그 중에서 燕 문화와 趙 문화는 사회경제, 사상 관념, 정치제도에서 자신들의 특징을 갖추었고, 독특한 전형성을 갖추었으며, 燕趙지역은 농업 구역과 목축업 구역의 과도 지대였다²⁾. 길고 긴 문화 발전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는 농업의 발생, 목축업의 분화와 농축업의 교체 확장을 거쳤다. 다시 말하자면, 燕, 趙 문화의 형성, 발전 과정이 바로 농경민족 문화와 유목민족 문화가 격하게 부딪치고 융합되는 과정이었다.³⁾ 燕, 趙 문화의 시작, 형성과 발전 과정이 바로 낡은 제도의 구축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의 시작, 발전과 변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각종 사상이 격하게 충돌하고, 새로운 사조가 계속 나타나는 시대이다. 燕趙 문화의 형성 과정도 이렇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교체되는 과정이다. 중국 역사 문화 흐름의 강으로 통합된 후 燕趙 문화는 齊魯 문화, 吳越 문화, 楚 문화, 秦 문화 등과 함께 중국 先秦사회시기, 秦漢사회 문화의 전경을 이루었고, 중화 민족 통일 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燕 문화든 趙 문화든 燕趙 문화든, 학술계의 관련 연구들은 전부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기존의 학술 저작과 논문들은 대부분 양자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연구하거나, 2개의 독립적인 개체로 보고 논술을 진행하거나, 어느 한 시기를 연구 중점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단일적인 시각에서 아주 큰 연구 여지를 두고 진행한다. 본고는 양자의 기원, 형성 원인, 발전, 내용 특징과 생성 원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은 설명을 하여, 그 기반에서 양자에 대해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점 및 내적인 연결을 탐

1) 張京華, 《燕趙文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8.p.12

2) 上揭書, 《燕趙文化》, p.12

3) 上揭書, 《燕趙文化》, p.14

구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진일보로 추진해 보려 한다.

2. 선행 연구

문화 연구 영역에서 전통문화는 연구 초점이 되었지만, 현재 학술계의 燕 문화, 趙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趙 문화와 비해, 燕 문화에 대한 연구가 유난히 부족한 편이다. 그 원인은 역사적으로 燕國에 관련된 기록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며, 춘추시기의 200여년 시간 동안 《左傳》, 《史記》에서도 燕國 관련 기록이 2, 3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비록 燕國은 西周시대 각 왕조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기재를 보면, 燕國과 관련된 자료들이 아주 적다. 문헌이 결핍하고 상실된 제한 때문에 연나라에 대한 연구는 늘 역사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고, 긴 시간 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에서의 발견이 계속 많아지면 燕國의 역사가 일부 적으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燕國역사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자들은 역사 문헌과 고고학 발견을 결합시켜, 연구 역사와 문화 관련의 문장을 편성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것이 陳平의 <燕史紀事編年會按>⁴⁾이다. 편저자들은 先秦시기부터 시작하여 明나라 淸나라 시기까지의 150여 부의 고대 서적들 중에서 선정하여, 燕國역사 관련의 원시 자료와 해석들을 정리하여, 燕國역사 자료의 대규모 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 학자들의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평론과 설명을 정리하였다. 본 저작은 중국 국내 최초로 燕國역사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고 燕國역사 연구의 공백을 충실할 수 있는 훌륭한 저작이었고, 향후 燕國역사 문화 연구를 위해 좋은 기반을 구축하였다. 王彩梅는 《燕國簡史》⁵⁾에서 燕國의 형성, 발전 과정과 지리 위치를 설명하였고, 그 지역의 그 시기 정치, 문화, 경제와 민족 교류를 소개하였으며, 상세하고 신빙성 있는 근거와 내용을 인용하였다. 陳光이 편집한 《燕文化研究論文集》⁶⁾은 총 관련 논문 45편을 수납하였고, 총론, 都

4) 陳平, 《燕史紀事編年會按》,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5) 王彩梅, 《燕國簡史》,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1

6) 陳光匯, 《燕文化研究論文集》,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1995.

城考, 銅器考, 燕幣考, 兵器考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내용과 관련된 범위가 아주 넓다.

趙 문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학술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 문화이다. 1987년9월, 제1기 趙 문화 학술 토론회가邯鄲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후 저작《趙國歷史文化論叢》을 편성하였다. 2005년4월邯鄲에서 제2기 전국 趙 문화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회의 후 각 전문가들이 제출한 논문과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趙文化論叢》을 정리해 내었다. 이 두 차례의 학술회의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趙 문화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 趙 문화 연구의 범위도 개척되었다.

그 외에, 전문 학자들은 저작이나 문장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沈長雲이 주필한《趙國史稿》⁷⁾는 처음으로 戰國시기 7나라 중 한 나라인 趙國의 통사를 담은 작품이며, 내용에는 조나라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과 인문환경이 포함되었고, 췌나라에서의 趙 씨의 발전, 趙國의 설립과 정치제도, 인물 등도 포함한다. 孫繼民, 郝良眞의《先秦兩漢趙文化研究》⁸⁾는 趙 문화의 시공, 유형, 특질, 유적 등 방면들에 대해 논술하였고, 先秦시기의 趙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兩漢 趙나라 지역 문화의 계승을 포함하여, 趙 문화 구성의 이중성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였으며, 엄밀한 근거를 인용하고,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劉心長의《邯鄲古代史論叢》⁹⁾은 최근 몇 년邯鄲 趙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정리하여 趙 문화가 중국 역사와 민족 발전에 주게 된 영향을 토론하였고, 고대성의 문맥 계승을 보여주었다. 상기 연구 성과는 연구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연구를 하여 연구의 심도가 부족하거나, 일부 방면들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인식 심화가 일부분에만 제한되어 있거나 하여, 이 때문에 趙 문화 연구에서도 아직도 개척해야 할 공간이 많다.

燕 문화와 趙 문화 각 전문 연구 외에, 일부 학자들은 燕나라와 趙나라의 전반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張京華의《燕趙文化》¹⁰⁾, 秦進才의《燕趙歷史文獻研究》¹¹⁾ 등은 전부 燕趙 문화에 대해 다양한 정도로 토론하고 탐구하였다.

7) 沈長雲等,《趙國史稿》,北京,中華書局,2000.

8) 孫繼民,郝良眞,《先秦兩漢趙文化研究》,北京,方誌出版社,2003.

9) 劉心長,《邯鄲古代史論叢》,北京,中國文史出版社,2004.

10) 張京華,《燕趙文化》,沈陽,遼寧教育出版社,1998.

11) 秦進才,《燕趙歷史文獻研究》,北京,中華書局,2005.

3. 연구 방법

본고는 趙 문화와 燕문화 각자의 기원 및 형성 원인에서부터 착수하여 燕, 趙 문화 각자의 발전, 내용, 특징 및 생성하게 된 영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며, 그 기반에서 양자의 차이점, 공통점 사이의 연결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최대한으로 양자의 특징에 대해 투철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이 있다.

(1) 실증 연구방법으로 燕, 趙 문화 각자의 기원, 형성 원인, 발전, 내용 특징 및 생성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燕, 趙 문화 관련 문헌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 중에서 고고 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헌 기록의 간략함과 부족함을 보완할 것이며, 문헌 기록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증명하여 역사 문헌의 편파적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

(2) 비교를 통해, 燕, 趙 문화의 외적인 특징과 함의를 연구하고, 특히 문화의 발생, 발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구조 요소 등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 공통점과 내적인 연결을 장악하려 한다.

(3)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구조 분석법을 응용하여 연, 趙 문화의 함의에 대해서도 구조 분해 분석을 할 것이며, 燕, 趙 문화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 잘 알아보려고 한다.

(4) 역사학의 자료 분석법을 사용하는 과 중시에, 본문은 민족학, 고문 자학, 사회학, 지리학, 기후학, 민속학 등 관련 학과의 연구 이론과 방법 참고에도 주안점을 많이 둘 것이다.

II. 燕趙의 개황

1. 燕趙지역 명칭의 유래와 변이

燕趙의 지역은 단순히 戰國시기의 燕, 趙 두 나라의 변경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戰國시기 燕, 趙 두 나라 중간에 다른 나라인 큰 대국 즉 中山國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燕, 趙 양국은 모두 자신의 변경을 전쟁으로 인해 계속 변화했었다. 그래서 비록 燕趙구역은 戰國시기의 燕, 趙 두 나라의 지역을 주체로 하지만 완전히 두 나라의 국토와 변경을 통해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본다.



春秋戰國時期中山國地理分布圖

燕趙지역은 오늘날의 河北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오늘날의 河北는 燕趙라고 불리고도 하는데 그 경계선은 대체로 戰國시기의 燕, 趙 양국의 변경선과 일치하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특징을 말한다. 지역 구분은 종종 모호한 자연 구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상에 존재한 문화적 특징은 행정구역의 구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河北는 약칭으로 冀라고 불린다. 그 연원은 冀州에서부터이다. 《尙書·禹貢》에서는 고대 아홉 개의 州의 하나라고 한다. 冀州의 범위는 애초에 매우 넓다. 오늘의 산시의 대부분과 산동의 서북부를 포함하고 있다. 冀州가 일급 정식의 행정 지역으로 분류되기 이전에는 한 구역의 통칭이기도 하였다. 그 경계선은 매우 모호한데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황하이다. 《爾雅·釋地》와 《周禮·職方》 두 책에서는 모두 ‘두 강 사이를 冀州라고 한다(兩河間曰冀州),’¹²⁾ ‘강 안쪽은 기주로 부른 도(河內曰冀州)’ 라고 하였다. 黃河와 같은 큰 강이나 큰 산을 통해 지역을 구분하는 문화는 매우 유효하다. 이는 모호하면서도 정확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행정 구분보다 정확하며, 안정하다. 그런 차원에서 황하로 燕趙 구역의 남구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太行山과 燕山산맥은 燕趙 구역의 서쪽 경계선과 북측 경계선이다. 燕趙 지역의 (東)동측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어 (西)太行山과 (北)燕山은 (南)黃河이외 燕趙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다.

2. 燕趙 지역의 문화적 정의

燕趙 문화는 중화 문화의 중요한 지역 문화다.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말하는 “燕趙 문화”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戰國시기의 燕趙의 범위를 말할 때, 燕趙의 범위는 京津冀와 遼寧, 吉林, 內蒙古의 부분 지역을 포함한다.¹³⁾ 당대의 시인 韓愈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燕趙에는 비분강개한 지사가 많다

(燕趙多慷慨悲歌之士)¹⁴⁾

遼寧을 포함한 燕趙 지역의 인문 정신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宋나라, 金나라, 遼나라의 분열과 행정구분의 변화로, 각기 다른 언어 환경에서 말하는 “燕趙”의 범위도 달라진다. 元나라 시기부터 省을 중심으로 하는

12) 漢籍, 《尙書·禹貢》, 今日之山西省, 河北西北豫北等地.

13) 張京華, 《燕趙文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5.

14) 韓愈, 《送董邵南序》,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 p.2.

행정구분법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燕趙 문화는 오늘의 京津冀지역의 문화가 되
었던 것이다.

III. 燕, 趙 문화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

1. 燕 문화의 형성 토대

1) 燕의 지리적 범위



春秋戰國時期燕國地理分布圖

우선 우리는 燕 문화를 수용했던 지리적 범위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先秦시기의 燕國 이 탄생하고 발전하며 주변에 영향을 준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 《史記》 등의 고전에 기록에는 오늘에도 남아 있는 성지, 묘지, 장성 등의 유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燕國의 범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된다.

西周시기, 오늘의 北京, 河北북부, 遼寧의 서부 일대에는 燕國이 있었다.¹⁵⁾ 戰國시대에 진입한 후 燕國은 戰國칠웅에서 비교적 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었는데, 오늘의 北京과 河北의 북부, 중부의 일부 지역, 그리고 遼寧 성의 서남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燕國의 서쪽과 남쪽의 대부분은 조와 근린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은 中山國과 인접하고, 동남부는 齊나라와 인접, 동북부는 東胡의 部族과 인접했다¹⁶⁾. 전체 燕의 경내에는 북부가 길고 남측이 짧다. 북부에는 장성을 쌓아 방어했다. 燕은 진을 징벌하고 上谷, 漁陽, 右北平, 遼東, 遼西 오군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요동, 요서 두 군은 오늘

15) 張廣誌, 《西周史與西周文明》, 上海,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7, p.230.

16) 沈長雲, 楊善群, 《戰國史與戰國文明》, 上海, 科學技術文獻出版, 2007, p.17.

의 장성의 북측에 있다. 기타 세 군은 장성의 내부에 있다. 燕이 秦에 의해 멸망한 후 이 다섯 개 군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燕남은 물론 경계선을 확정했는데, 동측은 말해, 서측은 太行山을 통해 구분하였다. 燕의 서측 경계는 오늘날의 河北성의 북부와 서북 지역이 포함된다.¹⁷⁾

2) 燕의 지형과 기후 상황

오천년 전 燕은 양호한 생태 환경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면모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고대 기상과 지질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당시 燕의 생태 환경은 총체적으로 기후가 습윤하고, 강과 호수가 밀접했으며, 산림이 무성했다. 저명한 기상학자인 竺可桢선생은 연구를 통해 말하기를 오천년 동안 중국의 기후는 따뜻하고 비가 많으며, 서북 지역은 반건조기후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黃河지역의 기후는 대체로 오늘의 長江이북, 淮河이남 지역과 같이 아열대 기후였다고 한다. 그는 오천년 동의 기후를 네 개로 분류하였는데,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100년은 온기,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 1400년은 한란의 교체기, 기원 1400년에서 1900년은 한랭기, 그리고 1900년 이후는 파동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 기간에는 또한 각기 다른 변화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통해 우리는 燕國이 멸망하기까지 대체로 세 개의 기후변화기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100년의 온기,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전 850년의 단기 한랭기, 그리고 기원전 770년에서 春秋, 戰國, 秦漢시기의 온난기가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온기-한랭-온기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西周와 春秋시기에는 《詩經》, 《左傳》에서 종종 梅竹 등 아열대 식물을 언급하였다¹⁸⁾. 이는 당시의 연평균 온도가 오늘날보다 2, 3℃ 높았음을 말하고 있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짧고 정월의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3℃ 에서 5℃ 정도 높았다. 영상일 때, 동물과 식물은 선명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北宋시기에 와서와 변화가 생기는데, 이 시기의 화북 지역은 매화나무가 살지 못하게 된다.

先秦에서 漢나라 초기, 大禹가 홍수를 막는 전설을 매우 많이 유전되고 있었다. 이를 기록한 것으로 《尚書》, 《國語》, 《左傳》이 있다. 그리고 고대사서와 儒道墨法의 저작에도 많이 나온다. 근대의 일부 학자들도 홍수의 발생과 大禹治水의 진실성에 대해 논

17) 楊玉生, 《燕文化》, 北京, 方誌出版社, 2005, p.5.

18) (明)朱熹註, 《詩經集傳》, 上海古籍出版社, 1987, p.8.

증을 하였다¹⁹⁾. 애초에 徐旭선생이 역사 지리와 사학의 각도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증하였다²⁰⁾. 근 년래, 吳文祥 등은 고고학, 고 문헌학 및 천문학과 같은 학문의 융합을 통해 연구 성과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기원전에 홍수가 발생한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²¹⁾. 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大禹치수는 대체로 長江지역이다. 그러나 史可楨선생이 밝힌 바에 의하면 上古시기의 黃河유역의 기후는 오늘의 長江지역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黃河지역의 사람들은 홍수와 싸워 했다. 그러나 고대의 黃河의 하도는 오늘과는 다르다.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하도를 변경했다. 지질학과 고고학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4000 전후에 화하에는 대규모의 하도 변경이 있었다. 변경 후 黃河하류는 河北평원의 중남부를 지나서 天津에서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²²⁾ 오늘날의 河北평원의 중남부와 동부는 모두 黃河가 지나던 지역이다. 전설에 의하면 堯舜때, 黃河의 중하류에는 많은 홍수가 일어났는데, 黃河는 아홉 개의 강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북 평원을 침범하고 한다. 범람한 黃河의 북부는 즉 燕의 지역이다. 홍수와 치수는 원시생활에서의 생태 환경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燕 문화의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존의 언급을 통해서 燕 문화의 독특한 점을 추출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上古시대 燕의 이러한 기후와 홍수 등의 현상은 여타의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지형에서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燕國은 지형이 복합된 국가였다. 국경 내에는 하천과 산, 바다, 평원 등의 지리적 요소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원, 초원, 산지 등의 지리적 요소도 갖췄다. 戰國시기에 燕國의 국경 내에는 하천이 많았는데 이는 오늘의 北京과 天津과 비슷하다. 海河水계를 중심으로, 子牙河, 大清河, 永定河, 南運河, 北運河 등의 하천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동북부 즉 오늘의 遼寧省의 경내에는 鴨綠江, 遼河, 太子河, 混合, 大凌河, 大洋河 등의 여섯 개의 큰 강이 있었다. 燕國의 경내에는 평원으로는 遼河平原, 延慶山間平原과 京津平原이 있었다.

燕國內에 산천과 언덕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燕國의 북부는 燕山山脈의 일부분

19) 俞偉超, <龍山文化與良諸文化衰變的奧>, 文物天地, 1992, (3), p.27-28, 沈長雲, <論禹治洪水真相兼論夏史研究諸問題>, 學術月刊, 1994, (6), p.71-77. 王青, <大禹治水的地理背景>, 中原文物, 1999, (1), p.34-42. 楊善群, <大禹治水地域與作用探論>, 學術月刊, 2002, (10), p.46-52.

20) 徐旭生,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p.148-189.

21) 吳文祥, 葛全勝, <夏朝前夕洪水發生的可能性及大禹治水真相>, 第四紀研究, 2005, (6), p.741-747.

22) 王青, <大禹治水的地理背景>, 中原文物, 1999, (1), p.34-42.

이다. 사람들은 이를 북산이라 불렀다. 서부는 太行山의 일부분이다. 이를 서산이라 불렀다. 동북부에는 長白山과 天山山脈이 있었다. 이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황해와 발해로 나아갔다. 이로써 요동반도를 형성했다. 天山山脈의 양측은 구령으로 기복이 심하다. 해발은 모두 500미터 이하 이며 그 북부는 吉林省 남측의 哈达岭, 그리고 天山山脈인접한 沈阳의 동부와 함께 遼東언덕을 형성하였다. 燕國의 경내는 산맥들이 높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燕山의 북산, 太行山脈에 속하는 서산과 長白山에 속하는 長白山脈은 모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산으로 인해 양측에는 산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燕國의 자연 지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燕國의 구역 내에는 산들이 많고 해발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천들이 많다. 이러한 독특한 생태 환경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 더 나아가 지역의 풍속과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비분강개의 감정은 모두 燕國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黄河河道变迁图

3) 민족 융합과 전쟁의 영향

민족 융합은 각기 다른 민족 간의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혈연적으로 서로

흡수하고, 배우며 융합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²³⁾. 이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의 중국에서 민족 간의 융합은 종종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른바 무력을 통한 융합이다. 그래서 전쟁도 燕 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사회 문헌에는 처음으로 민족 융합을 다룬 것으로는 炎黃의 전쟁이 있다²⁴⁾. 《史記》에 의하면 黃帝, 炎帝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른 적 있다. 한번은“阪泉之戰”이고 다른 한번은 “涿鹿之戰”이다. “阪泉之戰”은 黃帝와 炎帝와의 전쟁이다. “涿鹿之戰”는 黃帝와 蚩尤와의 전쟁이다²⁵⁾.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黃帝가 승리했다. 그들 간의 전쟁은 바로 燕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존하는 몇 개의 비교적 영향력이 큰 고문헌 이를테면 《左傳》과 《山海經》과 같은 책에서는 모두 黃帝, 炎帝, 蚩尤가 이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적고 있다. 특히 《史記》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炎帝의 시기는 이미 농경 사회였다. 농업과 사화 문화의 많은 방면에서 유목을 중심으로 하던 黃帝보다 훨씬 선진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黃帝, 炎帝 두 족의 융합은 黃帝가 炎帝를 소멸한 것이 아니다. 이는 黃帝족의 정치 통치와 炎黃족의 농업 경제의 결합이라고 보아야 한다.²⁶⁾ 그래서 炎黃의 전쟁은 차별되었던 농업 생산 방식 간의 충돌이며, 部族 간의 혈연 융합을 촉진시킨 전쟁이다. 炎黃의 이러한 융합 반식은 매우 전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처음부터 중국 역사의 발전 기초를 확정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周人이 발달한 殷商을 징벌하고, 秦나라가 발달한 산동의 여섯 나라를 징벌하고, 그 이후로 元나라가 宋을 멸망시키고, 淸이 明을 멸망시키는 것이 모두가 炎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 燕 지역이 각종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민족의 융합과 전쟁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 하에 민족 융합은 종종 전쟁의 폭발을 동반하였다. 그래서 전쟁은 燕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燕 문화가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23) 李愛平,〈中學歷史課民族融合問題的教學〉,鎮江高專學報,2003,(4),第2期.

24) 楊玉生,《燕文化》,北京,方誌出版社,2005,p.19.

25) 上揭書,《燕趙文化》,p.116.

26) 崔誌遠,葛振江,〈燕趙風骨考論〉,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2,(5),p.100.

연 문화의 독특한 품격도 있을 수 없었다. 唐나라 후기에서 兩宋 기간 전국의 경제 중심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전되었고 전쟁이 燕 문화의 형성에 끼친 영향도 각기 달랐다. 전반기에는 대체로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쟁은 燕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燕 문화 중 비분강개의 정신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계속 발전했던 것이다.²⁷⁾ 그러나 후반기의 전쟁은 대체로 소극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원인은 아마도 후반기의 전쟁이 대체로 남방의 경제 구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순수한 전장으로 몰락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의미는 있다 할지 모르나 지역적인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를 설명하는 사건으로 北宋이 두 번째 遼나라를 징벌하였는데 실패하자 방어한다. 북방의 군사를 억제하기 위해 河北의 평원에 강을 판다. 서쪽은 保州²⁸⁾에서 동측은 泥沽海口²⁹⁾ 900리에 달하는 거리이다. 이로 인해 歐陽修가 이렇게 말했다.

河北지역으로 廣信, 安素, 順安, 雄, 霸의 사이에 있다. 연못이 많아 백성들이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었다.

(河北之地, 緣邊廣信, 安素, 順安, 雄, 霸之間, 盡爲塘水, 民不得耕者十八九)³⁰⁾

2. 趙 문화의 형성 토대

1) 趙의 지리적 범위

燕 문화와 마찬가지로 趙 문화 역시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로 先秦시기의 趙國의 건국, 발전과 영향이 미친 지역을 일컫는다. 고대 문헌의 기록과 현대의 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韓, 趙, 魏가 썩을 분열한 후, 趙國은 썩國의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영토를 차지했다. 趙國의 몇 대의 군왕이 지배한 후 趙武靈王과 惠文王의 시기에는 趙國의 강토가 사상 제일 큰 시기에 도달했다.

趙國의 동부는 清河와 齊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남부는 漳河와 魏國을 인접한다. 서부는 黃河를 가로질러 秦과 인접한다. 북으로는 易水와 燕國 와 인접한

27) 上揭書, 《燕文化》, p.23(2005).

28) 保州는 오늘 保定市.

29) 지금은 天津의 軍糧城.

30) (宋)歐陽修撰, 周必大編, 《文忠集》(卷壹百十八),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33.

다. 서북 측은 장성과 林胡, 樓煩, 匈奴와 인접한다. 그 강역은 오늘날의 河北省의 전체와 太行山 동측과 연결된 광대한 평원을 포함한다. 陝西省의 북부, 山西의 북부, 중부, 동부 지역과 內蒙古의 包頭시 서쪽 지역의 광대한 지역을 포함한다.



戰國時期趙國地圖

2) 趙의 지형과 기후 상황

趙의 지리적 지형은 복잡하다. 남북 측으로는 太行山脈이 동서로 갈라놓았다. 서부는 山西의 고원이 있고, 동부는 河北 평원이 있다. 이 두 지역은 趙國의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冀北, 冀西北의 산지와 內蒙古 고원이 있다.

河北 평원은 지세가 높지 않고 해발 백 미터 아래 있다. 그 중에서 오십 미터 이하의 지형이 대부분이다. 산시 고원은 太行山脈의 서쪽에 있으며 동부는 산지, 서부는 고원과 산지, 중부는 분지로 구성되어 있다. 冀北, 冀西北 산지는 화북 평원이 內蒙古 고원으로 과도하는 산지와 분지로 구성된 구역이다. 冀北 산지에서 북으로 가면 內蒙古 고원이 있다. 여기에는 광활한 초원이 있는데, 戰國시기 여기는 趙國의 북부 변경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먼 곳이 기도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東胡, 匈奴등의 유목민족들이 종종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趙의 지역에는黃河, 汾河등이 있다. 先秦 시기에는 趙의 지역 내에는 지금보다 많은 호수가 있었다. 제일 이름 있는 것으로는 河北 평원 서부 太行山하류에 이루어진 황하의 교차점에 생성된 큰 大陸澤이 있다. 이는巨鹿澤, 廣阿澤으로 불리기도 한다.

趙의 지리적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는 燕과 趙의 지역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예들 들어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모두 평원, 고원, 초원, 산천, 산지, 하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큰 차원에서 볼 때, 趙는 내륙 형이다. 그러나 燕國은 동으로는 바다를 인접하여 대륙 국가와 해양형국가의 종합이다. 이는 양자의 문화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볼 때, 燕과 趙는 모두 산천이 많으나 양자는 차이가 있다. 趙의 경내에는 오로지 太行山脈만 있다. 그리고 燕의 경내에 있는 산과 비교했을 때 해발이 매우 낮은 편이고 면적도 적다. 그러나 燕의 경내에 있는 산맥은 대체로 면적이 매우 크며 산맥의 양측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지가 많다. 그리고 양자는 모두 하천을 갖고 있는데, 하천이 흐르는 곳에는 대체로 호수가 생긴다. 그러나 호수는 크기의 차이가 있고 수량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연의 경우 산지가 많고 해발이 높다 보니 호수의 수량에 있어서 趙만큼 많지 않다. 先秦 시기 黃河는 자주 범람했는데, 河北평원에서 동부 지역은 모두 黃河가 지나가는 유역이었다. 그래서 수재도 많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연의 구역도 있고 趙의 구역도 있다. 그러나 趙의 구역 내에는 호수가 많다 보니 홍수를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양자가 홍수를 입는 피해가 달랐다. 호수가 당시 농업 생산의 향상에 또한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³¹⁾.

기후로 볼 때 趙國과 燕國은 대체로 일치하다. 큰 차원에서는 동일하나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燕國의 위도가 높고 趙國의 위도는 조금 낮은 편이다. 평균 해발로 볼 때에도 燕은 趙보다 높다. 그리고 趙의 경내에는 호수가 많아서 燕의 기후보다 따뜻하고 습윤했다.

3) 민족 융합과 전쟁의 영향

燕과 비슷하게 趙의 인문환경에서 민족 융합도 중요한 주제다. 趙의 북부와 서

31) 沈長雲等, 《趙國史稿》, 北京, 中華書局, 2000, p.16.

북부는 북방의 야만인 部族과 인접했다. 이는 필연코 각종 민족 간의 출동을 야기하게 된다. 전쟁은 이를 융합하는 형식의 하나였다. 문자가 기록된 殷商의 시기에 趙의 일부 지역에는 殷商 말기의 국도 부근의 땅이었다. 그와 동시에 趙의 국내에는 당시 商王朝와 관계가 밀접한 方國, 예를 들면 土方, 羌方 등이 있었다. 이러한 方國은 商王朝에 승복하거나, 혹은 商王朝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西周가 건립된 이후, 대규모의 영토 분봉이 있었다. 趙의 경내에서 활동하는 西周의 분국으로는 晉, 邢, 韓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야만인 部族도 있었다. 이러한 사 람들이 장기적으로 西周의 분국과 잡거하다 보니 서로 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로써 각 部族인 장기적으로 융합된 국면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西周시기 화하 민족이 형성된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 할 수 있다.

春秋시기, 晉國이 패권을 잡은 후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하였다. 북방의 部族과 삼십년의 전쟁을 벌였다. 晉이 분열된 후, 鮮虞는 中山으로 이름을 고치고 당시 戰國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 中山은 趙國과 인접했는데, 趙의 惠文王이 집권해서야 中山을 파멸시켰다. 양국 간은 빈번하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농경민 민족 간의 전쟁은 趙國에서도 많이 일어났다. 이는 그 “사면이 다른 나라와 인접(四达之國)”의 지리적 위치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양자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융합의 과정에서 趙는 조금 특이한데, 그것은 바로 야만족과 전쟁을 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인 고려로 야만족들과 통혼을 장려하였다. 趙가 북방의 야만족들과 통혼하는 것은 일정한 전통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 화이의 관념은 강하지 않았다.

IV. 燕, 趙 문화의 기원

戰國시기 燕, 趙 는 모두 戰國의 칠웅에 속했다. 燕趙의 지역 문화 풍경은 戰國시대부터 발전하여, 성숙되었다. 그러나 燕, 趙 문화의 발단은 戰國이전부터라고 본다.

1. 先燕 문화

商周시기 周왕이 召公을 燕에 부임시켜서부터 燕 지역의 역사 발전은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 자신만의 독특한 燕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西周초기 召公은 燕國에 기진되었다. 司馬遷의 《史記·燕召公世家》 이후부터, 燕國 의 역사는 西周초기로 본다. 총 삼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주왕이 召公을 燕國 에 기진시켰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西周에서 春秋戰國시기까지 燕國 이 戰國에 끼친 영향은 미세했다. 심지어 후에 건국한 趙國에도 미치지 못했다. 燕 지역이 흥성한 이유는 즉 “先燕文化” 때문이다³²⁾.

先燕文化는 본토의 문화와 商 문화가 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문화이다. 본토의 토착 문화라 함은 周武王이 商을 멸망시키기 전 연산의 남측에서는 이미 자생적으로 발전한 燕國이 있었다. 근 년래에 토착 燕國 문화의 고적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지엽적인 것이어서 선명하고 완전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2006년 4월에서 11월에 南水北調의 문물 보호 공사에서 河北省의 문물 연구소 고고학자들은 易縣七裏莊유적에 대해 대규모적인 발굴을 하였다. 여기서 西周이전의 토착 燕 문화에 대해 많은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를 七裏莊三期文化³³⁾라 지칭하였다. 이는 고고학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적으로 토착 燕國의 문화 유적을 발굴한 것이다³⁴⁾. 七裏莊三期文化의 대표적인 문물로는 동으로 된 귀걸이, 장방형의 석도 그리고 무늬 있는 鬲 등이 있다. 그중에서 제일 주목을 끄는 것으로는 바로 형태가

32) 上揭書, 《燕趙文化》, p139.

33) 段宏振<七裏莊遺址青銅文化遺存的演進—兼論燕山以南地區青銅時代考古學文化的相關問題>,中國文物報,2007年6月15期,p.7.

34) 劉成群,<河北日報>,2006年12月26.

크고 독특했던 무늬 있는 鬲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鬲은 황토 고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되었었다. 이는 중국의 북방의 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七裏莊의 무늬 있는 鬲은 일반 鬲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밖에도 형태가 크고, 무늬가 위쪽에 있으며 무늬의 형태도 다양하다. 이러한 무늬의 격은 선명한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쉽게 황토 고원의 鬲 형태에서 구분할 수 있어 지역적 문화를 대표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七裏莊出土的鬲的圖片

이러한 문화는 토착 燕國 문화이다. 이러한 토착 燕國은 또 殷商의 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楚辭·天問》, 《竹書紀年》, 《山海經》 등의 책에서는 기록하기를 商族의 조상인 王亥가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竹书纪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王亥라는 사람은 당시 有易이라는 지역에서 현지의 여성들과 함께 오락을 즐겼다. 이

35) 上掲書, <七裏莊遺址青銅文化遺存的演進－兼論燕山以南地區青銅時代考古學文化的相關問題>, 中國文物報,p.7.

는 당시의 有易국군 대신의 질투를 사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王亥의 조카인 甲微는 河伯의 군대와 연합하여 有易을 진공하고, 綿臣을 죽여서 보복을 하였다.

(殷王子亥賓於有易而淫焉。有易之君綿臣殺而放之，是故殷主甲微假師於河伯以伐有易，滅之。遂殺其君綿臣³⁶⁾)

“有易”라고 적고 있다. 淸朝의 학자 王國維가 고증한데 의하면 이는 아마도 易水유역이라는 것이다³⁷⁾. 戰國시대의 燕國 남부 지역이라는 말이다. 王亥는 商族의 선조이다. 그로부터 구세를 지나 상탕이 있었다. 商이 夏를 멸망시킨 것은 商湯의 시기에 있는 일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夏王朝가 통치하던 시기 商人들의 조상은 이미 燕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북방의 燕 지역은 商族과 商 문화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탕이 商王朝를 건립한 후 그 행정 중심은 끊임없이 남측으로 이전되었는데, 商王朝는 결코 燕 지역의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학자는 지적하기를 甲骨文 중의 국족 “旻”은 바로 商 대의 燕國이라는 것이다. ³⁸⁾ 《甲骨文合集》³⁹⁾에서 “妇旻”이라는 말이 여덟 번이나 나타나고 “旻示”는 열여덟 번 나온다. 여기서 “妇旻”는 즉 旻국의 자녀가 商王朝에 와서 왕후가 되거나 귀족의 처가 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旻國과 商王朝는 장기적으로 통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旻示”는 즉 旻國의 수령이 商王朝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⁴⁰⁾ 이는 모두 先燕 문화에 殷商의 문화적 요소가 많음을 말하고 있다.

2. 趙 문화의 기원

《史記·趙世家》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趙 씨의 선조와 秦씨의 선조는 동일한 사람이다.

(趙氏之先，與秦共祖).⁴¹⁾

36) (梁)沈約註,洪頤煊校,《竹書紀年》,上海,商務印書館,1937.

37) 王國維,《殷虛辭中所見先公先王考》,北京,中華書局,1959,p.420-421.

38) 楊升南,《殷墟甲骨文中的燕與召公封燕》,北京考古集成,北京出版社,2000,p527-531.

39) 郭沫若,胡厚宣,《中國現代甲骨學方面的集成性資料匯編》,北京,中華書局出版(1978~1982).

40) 邱文山等,《齊文化與先秦地域文化》,濟南,齊魯書社,2006,p.421.

41) (漢)司馬遷,《史記·趙世家》,北京,中華書局,1959,p1779.

이는 趙와 秦이 모두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史記·秦本紀》에도 趙 씨는 秦나라를 건립한 嬴秦族 사람들과 같은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秦本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女修는 하현 조가 내린 알을 먹고 大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女修織，玄鳥隕卵，女修吞之，生子大業。⁴²⁾

이러한 신화적인 의미의 전설에 대해 《史記》에서는 秦과 趙 두 부족의 조상의 여성의 이름만을 기록했다. 씨족 출신을 중요시하던 고대사회에서 秦, 趙의 후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우월했던 여성 선조였다. 시대가 오래됨에 따라 자신들의 남성 선조는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秦, 趙 부계의 시조는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여수가 새알을 삼켜서 대업을 낳았다. 그는 동방의 새를 토렘으로 하는 씨족에서 왔다는 것이다. 혹은 고대 東夷의 部族인 少昊 씨족이라는 것이다. 《左傳·昭公十七年》에는 少昊의 후세 郯子는 昭公의 질문에 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黃帝는 운으로 기록을 하였다. 따라서 각 부서의 장관들은 모두 운으로 이름을 지었다. 나의 선조인 少昊가 즉위할 때 봉새가 마침 날아왔기에 그때부터 새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관들의 이름을 새로 지었다.

(昔者黃帝氏以雲紀，故爲雲師而雲名；我高祖少昊摯之立也，鳳鳥適至，故紀於鳥，爲鳥師而鳥名.)⁴³⁾

염자는 자신의 선조는 새로 자기 씨족의 각 지부의 관직을 명명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少昊씨족은 새를 토렘으로 하는 씨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少昊는 嬴성을 갖고 있는데, 秦과 趙의 두 部族도 모두 성이 영이었다. 少昊는 새를 토렘으로 하고, 秦과 趙의 선조들도 모두 새와 연관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秦과 趙의 성은 모두 자신의 부계의 시조인 少昊 씨족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秦과 趙의 조상인 少昊는 오늘날의 산둥 취부에 위치해 있다. 여기는 고대에 “少昊之墟”라 불렸는데, 인문 정신이 발달되고, 역사가 유구한 지역이다.⁴⁴⁾

42) 上揭書, 《史記》, 1959, p.173.

43) 左丘明, 《左傳昭公十七年》, 北京, 中華書局, 1979, p.546

44) 董林亨, <趙文化源頭辨識>, 邯鄲師專學報, 2001.

大業은 趙 씨의 이름이 명확한 첫 번째 남성 선조이다. 그는 夏朝의 창시인 大禹와 어깨를 겨루는 고대의 성현인 皐陶이다.⁴⁵⁾ 皐陶는 동이의 少昊部族에서 태어났다. 그는 大禹와 堯舜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尚書·堯舜》에 기록하기를 伯易은 舜의 아래에서 관직을 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새와 짐승을 사육하였다. 그 밖에 그가 한 제일 출중한 공헌으로는 大禹를 도와 수토 공사를 한 것이다. 大禹가 재임 시 그는 伯易을 자신의 후계자로 양성하려 하였으나, 大禹의 아들이 권력을 찬탈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伯易은 두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한명은 大廉로, 후세 사람들은 鳥俗氏라 했다. 趙 씨는 그의 직접 접인 계승자이다. 다른 하나는 若木라고 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조부의 씨를 붙여 費氏라고 불렀다. 鳥俗氏나 費氏를 막론하고 문헌에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상과 탕이 흥성하면서 費氏 자손이 費昌이 그들의 족인들을 통솔하여 夏의 통제를 벗어나 商에 의탁했다. 費昌은 商시기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鳴條의 전쟁에서 夏桀을 대패시켰다.

飛廉의 다른 자식은 季勝이다. 《秦本紀》와 《趙世家》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飛廉은 아들이 있는데 季勝이라 했다. 季勝은 孟增을 낳았고, 孟增은 周成王으로부터 중용을 받았다. 호는 재모랑 이었다.

(飛廉復有子曰季勝。季勝生孟增。孟增幸於周成王，是爲宅皐狼).⁴⁶⁾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周가 왕이 될 무렵, 趙 씨의 선조는 이미 周 왕실의 대신이었다. 만약 趙國의 건국이 趙 문화의 형성을 의미한다면, 그 준비에서 형성 발생은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우리는 이른바 “先趙 문화”라고 한다. “先燕 문화”와 마찬가지로 “先趙 문화”도 趙가 건국한 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趙國은 晉을 세 나라에서 병탄할 무렵에 분열된 것이다. 그리고 晉國은 西周의 초년에 동성의 본국이다. 趙國과 韓國, 魏國은 합쳐서 “三晉”이라 불렀다. 그 문화는 주로 周와 晉에서 기원하였다. 그래서 “先趙 문화”의 상한은 周成王시기 叔虞를 고대 唐國에 부임시켰을 때부터이다. 하한은 즉 趙國이 건국되기

45) 上揭書, 《趙國史稿》, p.36.

46) (漢)司馬遷, 《史記·秦本紀》, 北京, 中華書局, 1959, p.1094.

이전이다.

이러한 역사 이전의 문화를 우리는 “先趙 문화”의 연원이나 趙 씨의 흥기라 한다. 先趙 문화는 또 趙 씨가 쑤에 진입하는 것을 하나의 변환점이나 교착점이라 본다. 기존의 두 문화가 여기에서 융합되는데, 하나는 趙 씨가 주 왕실에서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趙 씨가 입국하기 전의 진국의 발전이다.

이상으로 알 수 있다시피 趙 씨가 쑤에 입국하기 전에 중 왕실로부터 조성이라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 씨족들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였다. 문화의 측면에서는 西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삼촌이 분봉되던 시기부터 다음과 같이 사명을 받았다.

분봉을 통해 周國의 통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封建親戚, 以藩屏周)⁴⁷⁾

고대 唐國은 대략 쑤 남부 지역의 분하와 회하가 교합되는 오늘날의 익성이나, 襄汾, 曲沃 지역이었다.

趙 씨가 晉國 에 오기전, 晉國 은 이미 한 번의 중요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趙 씨가 이 투쟁에서 曲沃라는 部族을 선택하였다. 이는 많은 고려와 분석을 통해 내린 결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趙 씨의 선택은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중법 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시절에 趙 씨의 발전은 끊임이 없었고 사회의 변혁의 형세에 적응하였다. 趙 씨는 쑤에 진입하여 총 11세를 거쳤는데, 거기에는 굴곡도 많았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그 발전은 신속했고, 최종적으로 강성한 것은 세인이 주목했다고 본다.

이상으로 알 수 있다시피 燕 문화에서 고고학을 통한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趙 문화는 문헌 자료를 많이 이용했다.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燕 문화의 계승은 토착 문화인 殷 문화가 결합되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趙 문화는 대체적으로 쑤 문화의 모체에서 분리되어 발전하였다. 하여 周 문화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司馬遷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7) (清)高士奇, 《左傳紀事本末》(卷四),北京,中華書局,1979.p.22

과거 당인들은 河東晉陽을 도성으로 삼았다. 殷인들은 하내의 殷墟에 도성을 정했다. 東周는 河南洛陽에 도성을 정했다. 河東과 河內, 그리고 河南 세 지역은 천하의 중심이었다. 마치 정의 세 다리와 같았다. 이 지역은 제왕들이 도성을 선정하는 지역이었고, 건국한 것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달했다.

(昔唐人都河東，殷人都河內，周人都河南。夫三河在天下之中，若鼎足，王者所更居也，建國各數百歲⁴⁸⁾)

夏, 商, 周의 삼대가 중원에 진입하여 통치를 했던 것은 전후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중원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의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정복된 이후에도 모두 일정한 제후국을 보존하였다. 그래서 夏, 商, 周 삼대의 문화 발전은 실질적으로 평행과 교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통해 燕 문화와 趙 문화는 각기 다른 연원을 갖고 있으며 그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8) (漢)司馬遷, 《史記·貨殖列傳》,北京,中華書局, 1959,p.2234

V. 燕, 趙 문화의 형성과 燕, 趙의 建國

1. 燕 문화의 형성, 발전과 建國

1) 燕 문화의 형성과 건립

燕國은 西周초년에 건립되었다. 대략 기원전 11세기 무렵이다. 이는 西周의 왕조 분봉으로 인한 제후국에서 기원하였다. 그 통치자는 西周왕실의 姬성의 귀족이었다. 周武王 13년에 召公은 周武王과 함께 牧野之戰에서 商군을 격파했다. 이로 인해 商紂王은 분신자살하였고, 商朝는 망하게 된다. 西周王朝는 비록 국가 정권을 건립했으나, 어떻게 商朝의 영토를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였다. 그래서 周王는 분봉제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左傳·僖公二十四年》에서 周나라 초기에 실행하던 분봉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封建親戚, 以蕃屏周”⁴⁹⁾. 召公이 燕國에 부임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다. 《史記·燕召公世家》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召公奭와 周왕실의 동성인 姬씨는, 周武王이 周를 멸망시킨 후 北燕으로 책봉 받았다.

(召公奭與周同姓, 姓姬氏。周武王之滅紂, 封召公於北燕)⁵⁰⁾

여기서 말하는 “北燕”은 바로 “燕”을 말한다. 그것은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北燕”이라고 칭하였다. 召公奭이 지정받은 燕은 바로 商朝시기의 북부 및 동북부의 변경 지역이다. 商湯이 夏를 멸망시킨 후, 夏王朝의 일부 사람들은 여기의 토착민들과 잡거하였다. 그래서 商朝는 계속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燕國은 종종 북방의 소수민족들의 침범을 받았는데, 周王朝가 燕國의 땅을 召公奭에게 직접한 이유는 매우 선명했다. 그것은 바로 周王朝의 북부 변경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周王朝의 중심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召公奭이 건립한 燕國에 형성된 물질과 정신적 유산을 姬燕 문화라 한다. 西周

49) 上掲書, 《左傳紀事本末》(卷四),p.22.

50) (漢)司馬遷, 《史記·燕召公世家》,北京,中華書局,1959,p1594.

초기의 燕國은 殷商 등 나라의 기초에서 건립된 것이다. 燕國의 역사는 西周의 분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 기원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많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召公이 燕國으로부터 분봉 받은 시기에 대해 학술계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史記》의 《燕召公世家》와 《周本紀》의 기록을 참고하여 周武王시절에 周武王이 周王朝를 건립하고 召公에게 영토를 분봉하였 이로써 西周에 소속되는 燕國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召公은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장자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도성에 남아서 계속 周왕실을 보좌하였다. 둘째, 《史記》와 《逸周書》 같은 문헌을 참고하고 명문을 결합하여 周成王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周成王은 周武王의 아들이다. 西周王朝의 두 번째 군주이다. 周武王은 殷商을 격파한 후 이년 뒤 죽는다. 周成王이 직위에 오를 때 어린 나이였다. 천하가 불안정하고 숙부인 周公은 천하의 제후들이 반동을 할까 걱정되어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숙부가 천자의 직무를 대신하자 이는 管叔, 蔡叔등 형제의 불만과 반란을 일으켰다. 周公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반란을 평정하고 武庚, 管叔을 죽이고, 蔡叔은 유배 보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설은 召公이 燕을 분봉 받은 것은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주장은 앞서 두 관점에 기초하여 “周武王시기”가 즉 西周의 초기에 周武王이 상을 격파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⁵¹⁾이에 본고는 세 번째 관점을 수용 하도록 한다.

西周의 초기에 三監之亂이 일어났다. 周武王이 정권을 탈취한 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 殷사람들을 통해 殷사람들을 통치하였다.

한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성원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다. 다수의 경우에는 쫓아내는 것으로 족하다.

(滅國不絕祀)⁵²⁾

그는 商紂王의 아들 武庚을 殷商의 옛 지역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管叔, 蔡叔, 霍叔을 殷의 도성의 주위인 衛, 鄘, 邶 세 국에 주둔시켰다. 이를 통

51) 陳恩林,〈魯齊燕의始封及燕與邶의關係〉, 歷史研究,1996,p15-23.

52) 蓋永德,中華蓋氏網,〈蓋氏文化古跡〉由“滅國不滅祀”探討蓋國的位置,2017年10月8日.

해 殷商의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三監”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周王朝의 입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周武王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듬해에 바로 죽게 된다. 周武王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周成王이 계승하게 된다. 그러나 周成王은 나이가 어렸다. 武王의 동생 管叔이 제일 나이가 많아 그는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周公이 집권하였다. 그래서 管叔은 武王의 유언을 周公이 수정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周公은 각종 엄격한 예제를 통해 주변의 제후들의 세력을 경계하였다. 이는 武王의 많은 동생들의 불만을 샀다. 《尚書·金縢》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管叔, 蔡叔은 유언을 퍼뜨려 周公이 왕을 하는데 불리하다고 하였다.

(管叔及其群弟乃流言于國曰：公將不利于孺子)⁵³⁾

이러한 상황에서 管, 蔡와 武庚은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武庚은 처음부터 북쪽의 야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삼감과 연합하고 殷商의 옛 지역인 동이의 徐, 奄, 薄姑 등의 나라와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다. 형세는 매우 위급했다. 管, 蔡, 武庚 등이 동이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周王朝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周公은 召公奭와 연합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동정하였다. 동정이 西周왕조의 정권을 확고히 하고 주변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周公은 우선 “三監”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유언들을 통제하였다. 管叔을 죽이고 蔡叔을 유배 시켰다. 武庚도 죽었다. 武庚이 과멸한 후 周公은 계속 동정하여 삼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야 반란을 평정하였다.

先秦의 문헌과 기록으로 볼 때, 周나라가 商을 징벌 하고 범위는 북쪽의 商都를 많이 넘지 않았다. 周武王시기 周나라의 세력은 오늘의 河北의 중, 북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武王은 商을 멸망시킨 후 은 이민들을 감시하는 三監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지리적 위치는 商왕자의 분봉지의 남부(동남과 서남을 포함)지역 이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감시국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商왕자는 三監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商公이 진압할 때, 武庚은

53) 《尚書》,最早書名爲《書》,是我國最早的一部歷史文獻匯編,作者不詳.

북측으로 도망쳤다. 만약 이때 북측에 商의 분봉국인 燕國이 있었다면 商왕자는 북측으로 도망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燕國의 건립은 반드시 周公이 商의 이민들과 三監의 반란을 평정한 이후였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春秋시기에 이미 “武王”을 西周초기의 대표로 하는 설이 있었다. 이는 武王의 분봉설과 周公의 분봉설을 합리적으로 해설하였다. 고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燕國을 포함한 周의 초기의 분봉에는 武王설과 周公(成王) 설이 있다. 이를테면 《左傳·昭公二十八年》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과거 武王은 殷商을 무너뜨려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의 형제 15명은 모두 분봉 받았다. 그리고 姬씨 성의 40명도 모두 분봉 받았다. 이들은 모두 왕의 형제와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공신이나 선대의 귀족이었다.

(昔武王克商，光有天下。其兄弟之國者十有五人，姬姓之國者四十人，皆舉親也)⁵⁴⁾

이는 武王 분봉설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이다. 이는 《史記·周本紀》와 《史記·燕召公世家》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左傳·僖公二十四年》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周公은 管叔과 蔡叔이 온화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같은 조상이 숙부와 그 조카에게 토지를 나눠주었다. 이들이 국가를 건설하여 周왕실의 보호막이 되었다. 管, 蔡, 郟, 霍, 衛, 毛, 聃, 郟, 雍, 曹, 滕, 畢, 原, 鄆이 나라들은 모두 文王의 아들이었다. 邰, 晉, 應, 韓 각 국은 武王의 아들이었다. 凡, 蔣, 邢, 茅, 胙, 祭 각 국은 周公의 후대였다.

(昔周公吊二叔之不鹹，故封建親戚以蕃屏周。管蔡郟霍，魯衛毛聃，郟雍曹滕，畢原豐鄆，文之昭也。邰晉應韓，武之穆也。凡蔣邢茅胙祭，周公之胤也)⁵⁵⁾

이러한 설은 《荀子·儒效》에도 보이고 있다. 또한 《左傳》에는 동일한 책에서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는 春秋시기에 이미 “武王”이 西周초기(武王이 商을 격파한 후 다시 돌아온 시기)의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左傳·昭公九年》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

周천자(周景王)는 詹桓伯을 보내 晉國을 질책하게 하였다. 武王이 商朝를 무너뜨린 후, 薄姑, 商奄, 이는 우리의 동부 영토이고, 肅慎, 燕國, 亳國은 우리의 북부 영토라고 하였

54) 出自《左傳》昭公二十八年章節.

55) 荀子,《荀子》,戰國後期.

다.

(王使詹桓伯辭於晉，曰……及武王克商，薄姑，商奄，吾東土也…肅慎，燕，亳，吾北土也)⁵⁶⁾

당시 薄姑, 商奄은 이미 周왕이 정복한 땅이었다. 이는 周公의 동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대의 문헌에서 이미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詹桓伯은 이 일을 두고 春秋시기에 이미 “武王”이 商를 멸망한 후 周公이 정치를 집권한 이 시기의 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주로 무왕이 상을 멸망시킨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周王朝가 제후들에게 분봉했다. 책봉 받은 군왕은 토지를 얻을 뿐 아니라 인구도 얻었다. 이는 분봉의 새로운 시기를 개척했다.

燕國의 처음 지정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20세기 4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北京의 房山區琉璃河鎮에서 琉璃河⁵⁷⁾유적지를 발견했다. 琉璃河는 중국의 상주시기의 중요한 유적지이다. 유적지는 동서로 3.5키로 이고, 남북으로 1.5키로 이다. 해당 유적지는 燕國의 초기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88년 중화인민 공화국 국문원은 이를 국가 중점 문물 보호 기지로 규정하였다. 유적지에는 고대의 성지, 무덤, 거주 지역 세부분으로 구분되었다. 고대 성지는 유적지의 중부에 위치해 있었다. 지면은 북성지와 동서의 성지의 북반부, 북성은 829미터, 동서 성의 북측은 300미터가 남아 있다. 성지의 건립 연도는 대략 西周의 초기로 본다. 묘지는 성지의 동남부에 있다. 황토층에 제일 집중되어 있다. 묘지는 대, 중, 하 세 가지가 있다. 모두 직사각형의 형태로 중소형은 이층대를 갖고 있다. 대형의 묘지는 대 갈래의 묘지 통로가 있었다. 소형 묘지의 수장품은 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형 묘지는 청동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형 묘지는 도척 되었다. 출토한 鼎이나 鬲은 극히 진귀한 청동품이었다. 근년에 “成周”문자가 적힌 갑골도 나왔다. 이는 燕의 도성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夏商周斷代工程”의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 구역은 성내의 서측이었다. 집과, 움, 웅덩이, 우물 등이 있었다. 현재는 이미 西周의 燕都 유적지 박물관으로 변모하였다.

56) 左丘明, 《春秋左傳正義》-卷四十五昭九年,北京,中華書局,1959,p.1837

5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北京市文物研究所琉璃河考古隊,北京琉璃河, <1193號大墓發掘簡報>考古, 1990年,第1期,p.20-31.

이러한 고고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瑠璃河说”은 제일 유력한 설명이다. “瑠璃河说”은 바로 北京의 房山區瑠璃河 유적지가 바로 燕國의 최초의 분봉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瑠璃河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고학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한 결과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유적지의 면적이 매우 크다. 瑠璃河 유적지의 위치는 瑠璃河鎮의 동북측, 동서로 3.5킬로미터, 남북으로는 1.5킬로미터다. 이는 오늘의 董家林, 劉家店, 黃土坡, 立教, 洄城, 莊頭 등의 여섯 개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도성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본다. 둘째, 고대의 성지의 유적은 周代 초기의 분봉 시기와의 대체로 일치하다. 瑠璃河의 유적지는 오랜 시간을 거쳤으며, 그 초기의 유물의 시간은 西周의 초년인 “成康时期”로 본다. 그리고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유적은 근년의 연구에 의하면 이의 건립 연대는 西周의 초년이라고 한다. 이는 周公(혹은 成王)이 燕國을 분봉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다. 셋째, 유적지에서 발굴된 국왕 급의 묘지이다. 알려진바 瑠璃河로는 유적지에서 발굴된 1193호 묘지는 瑠璃河 유적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묘지이다. 이 묘지는 黃土坡촌의 북쪽에 있다. 윗부분이 7.69미터, 넓이는 5.45미터, 아래 측은 5.6미터, 넓이는 3.44미터, 깊이는 10.25미터이다. 동시에 묘지의 사각에는 또 길이 4미터, 넓이 1미터의 묘지 길이 있다. 분석에 의하면 商周시기 대형묘지중 통로가 있는 것은 모두 귀족의 묘지이다. 특히 네 개의 통로가 있는 대형 묘지는 일반 귀족보다 신분이 높은 것으로 왕후 급의 묘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즉 燕國의 분봉자의 신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묘지에서 또한 “匱侯”하는 명문이 적힌 청동기가 발굴되었다. 이는 瑠璃河의 유적지에는 西周시기의 燕國의 제후인 후가족의 묘지라는 말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燕國의 최초의 분봉지는 北京房山區瑠璃河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瑠璃河의 商周 유적지의 중심 지역은 바로 董家林古城이다.

召公이 燕國으로 부임되는 것은 燕 문화의 형성을 말한다. 燕國의 건립으로 다시 은나라 사람과 주변의 殷인들의 세력을 통제할 수 있었고, 또한 북방의 소수 민족의 침입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周王朝 북부 및 동북부 변경의 안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는 모두 燕國 문화의 형성과 다원성 및 민족 융합성 등 특징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중원 문화가 북방의 유목 문화를 앞선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원의 체계적인 문화는 농업 문화이다. 북방의 체계적인 문화는 신석기시대에는 농업 문화였다. 그러나 자연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점차 유목이나 농업과 유목을 통합한 문화가 되었다. 董家林古城이 위치한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서 夏商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원의 농경문화와 북방의 유목 문화가 접목되는 지역이었다. 장기적인 융합에서 양자는 모두 진퇴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북방의 문화가 우세를 차지했다. 그래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의 하와 초기의 상, 그리고 董家林古城이 포함된 지역은 대체로 북방의 계통적인 문화 범위의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董家林古城의 건립은 이러한 국면을 변모시켰다. 새로 건립된 회성의 燕國은 은나라의 유민들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방으로의 영토 확장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西周王朝의 영역을 넓혔다. 周王朝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문화 분포의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의 발전 수준은 모두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燕國의 도성으로서의 董家林古城은 신흥의 周王朝의 방위의 작용도 충실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燕國의 문화가 중원으로 이어져 북으로 확산하는데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로 인해 토착 문화가 서로 융합되면서 현지의 경제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중원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일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이다.

2) 燕 문화의 발전과 성숙

燕國의 문화는 역사가 길지만 燕國이 西周에서 春秋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은 매우 느렸다. 이는 각 제후국에서 세력이 제일 약했기 때문이다. 春秋시기에 들어선 후, 燕國에 대한 역사 기록이 기존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간략했다. 심지어 왕의 世系에 대한 기록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燕國이 얼마나 약소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燕國이 정권을 수립한 후, 계속 토착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왔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속담을 기록하고 있다.

周國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

(不食周粟)⁵⁸⁾

58) (漢)司馬遷, 《史記·伯夷列傳》,北京,中華書局,1959,p.256.

商대의 말년에 오늘날 河北동부의 孤竹國의 국왕은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伯夷, 작은 아들은 叔齊이었다. 孤竹國의 국왕은 작은 아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임종하면서 작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孤竹君이 죽은 후, 작은 아들은 장자가 왕이 되는 규범을 깨트리기를 싫어 자신의 왕위를 형에게 양보하였다. 동생이 마음을 놓고 국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은 가출을 했다. 형이 떠난 후, 작은 아들도 왕궁을 떠나서 형을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이 만난 후 다시는 孤竹國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周文王이 노인을 존경하고 경양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로 가서 정착했다. 그러나 周文王이 죽은 후 武王이 계승하게 되었다. 武王은 병력을 확충하고 언제든지 商나라를 징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周王朝의 군대가 오늘날의 孟津지역에 이르렀을 때, 伯夷와 叔齊는 기회를 보아 뛰어갔다. 그들은 周武王이 효순하지 않고 인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武王은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 다행히 姜太公의 저지가 있었다. 姜太公은: “이 두 사람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그들을 놓아주었다. 武王은 징벌에 성공하여 천하를 통일하여 周라고 불렀다. 伯夷와 叔齊는 이를 두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周나라의 벼슬을 거부하고, 周나라의 양식도 먹지 않았다. 두 형제는 周의 통치 지역을 벗어나 首陽山이라는 지역에서 은둔하고 살았다. 그들은 산에서 나물을 캐서 끼니를 채웠다. 한 부인이 이들을 향해: “당신들은 周나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했으나, 당신이 캐고 있는 이 나물들도 周나라의 토지에서 자란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두 형제는 이를 듣고 천하의 모든 것이 周나라의 것이라 하여 단식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그들은 임종 전에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폭정을 통해 폭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神農, 虞舜, 夏禹의 성세는 모두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았다. 우리의 귀속은 어디에 있는가?

(用暴虐代替暴虐啊, 還不知道錯在妳自己。神農, 虞舜, 夏禹的盛世, 忽然間都已消逝無跡, 我們的歸宿在哪裏⁵⁹⁾)

59) 上揭書, 《史記·伯夷列傳》, p.256.

이는 당시의 토착 주민들이 연 정권에 대한 반항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燕國은 각종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었다.

이밖에 북방 소수민족의 침입도 있었다. 西周의 시기에 周왕실의 세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周의 천자는 각 제후국을 연합하여 외부의 소수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西周의 말기에 이르러 周왕실은 세력이 쇠약해져 여력이 없었다. 그들은 군사를 조직하여 외부의 소수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다. 春秋 시기 齊桓公, 晉文公등의 중원의 패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 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대외 사무를 보았다. 그들은 비록 일정한 정도에서 燕國 정권이 북방 소수민족의 침입을 대항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면에서 燕國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이는 燕國이 春秋 시기에도 여전이 강성하지 못하고 燕 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664년에, 산계가 燕國을 침입했을 때 燕國은 齊國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중원의 패자 齊桓公은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북벌하여 산계를 물리쳤다. 그리고 계속 북으로 돌진하였다. 이로 인해 燕國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燕國의 북방 지역이 강화되었다.

春秋의 말기에 북방의 소수민족의 각 부족이 점차 세력이 강대해졌다. 특히 燕國의 남부와 서남부에 있는 鮮虞, 中山 등의 소수민족들이다. 이들은 燕國의 국가 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당시 중원의 대국인 晉國에도 일정한 위협이 되었다. 晉國은 春秋만기에 북의 야만인들을 징벌하고, 몇 번의 전쟁도 벌였다. 이로 인해 북방의 야만족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는 燕國이 발전하는데 기회가 되었다. 그 밖에 燕國은 西周, 春秋시기의 여러 번의 도성 이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북방의 소수민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다. 북방의 야만족들의 침입이 외부 원인이라고 한다면, 燕國의 내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左傳·昭公三年》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다.

燕簡公은 많은 사람을 총애하고 있었다. 그는 대부들을 파면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을 대신으로 세우려 했다. 겨울에 燕國의 대부들은 힘을 합쳐 燕簡公의 총신들을 죽였다. 燕簡公은 두려워서 齊國으로 도피했다.

(燕簡公多嬖寵，欲去諸大夫而立其寵人。冬，燕大夫以比殺公之外嬖。公懼，奔齊)⁶⁰⁾

이는 바로 惠公之乱을 일컫는 말이다. 惠公之乱은 惠公 6년에 燕의 惠公은 많은 시녀가 있었다. 燕의 惠公은 충신과 충비를 설립하는 대부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燕惠公의 음탕한 행위는 많은 대부들의 불만을 샀다. 그래서 같은 해 겨울에 燕國의 대부들은 연합하여 燕惠公의 충신들을 죽였다. 燕惠公이 자신도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齊國으로 도망갔다. 惠公之乱은 당시 중원의 패자인 晉國이 燕國의 정치를 간섭하는 빌미를 주었다. 惠公 9년 11월은 燕의 惠公이 齊國으로 간지 사년이 지난 시간이다. 齊國의 국군은 晉國으로 가서 연합하여 燕國을 탄압하여 燕惠公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晉國의 국군이 晉平公은 동의했다. 10월에 齊景公이 발병하여 晉國과 함께 燕國을 출병한다. 燕惠公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다. 燕惠公이 燕國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燕國은 그 아들인 子燕을 국군으로 모셨다. 이는 내유 외환의 환경 하에 春秋말기의 燕國은 여전히 작고 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戰國시기에 진입한 후 燕國의 세력은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는 당시의 齊, 楚, 韓, 趙, 魏, 秦과 함께 “戰國七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春秋의 시기에 晉國의 북벌이 燕國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燕國의 통치자는 북방의 소수민족들이 북으로 이전하는 기회를 타서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였다. 燕文侯의 시기에는 燕國은 이미 대향의 양식을 저장해 두었고, 경제도 일정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燕國의 군사적 역량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기원전 380년과 기원전 373년에 燕國의 군대는 두 번이나 齊國을 물리쳤다. 이는 燕國이 齊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적었지만 여전히 군사적 역량에서도 연이 많이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戰國의 중기에 燕國이 일정한 발전을 한 후, 계속 발전을 해야 하지만 유명한 燕國의 “禪讓”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당시의 燕國이 멸망을 초래할 뻔했다. 선양은 통치자가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禪”이라 하면 선조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함을 말한다. “讓”은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것을 말한다. 禪讓은 내선과 외선이 있다. 내선은 제왕이 자신의 자리를 같은 성의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외선이라 함은 자신의 자리를 다른 성의 사람에게

60) 左丘明, 《左傳》 昭共三年,北京,中華書局,1959,p.1637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쑤는 쑤에게 선양하였다. 大禹의 아들인 기가 대의의 선양인 伯易을 죽인 후, 중국 역사상 첫 번째 禪讓制는 끝났다. 이로부터 민주적 성격의 禪讓制가 부전자의 천하 양식으로 대치되었다. 1600년이 지난 기원 316년이 되어서야 중국 북방의 燕國에서 다시 禪讓이 일어났다. 이번의 禪讓은 약간 유머를 동반한다. 명석한 대신이 군주를 희롱하여, 정신을 잃은 군주는 자신도 모르게 왕위를 내놓게 된다. 이러한 禪讓은 燕國이 오랜 기간 전란에 빠지도록 하였다. 燕國의 왕인 姬噲는 당시 燕國의 서른여덟 번째 국군이었다. 姬噲는 자신의 왕위에 오른 후 야심이 넘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燕國의 사정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齊國을 가까이 하는 열개의 도성이 이미 齊國인들로부터 점령당했다. 이때의 秦國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천하를 통일할 야심을 품고 있었다. 蘇代는 蘇秦을 이은 성공한 인사이다. 그리고 蘇代와 子之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았다. 子之와 蘇代 그리고 강호의 한은둔자는 기회를 봐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子之가 제위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모두 병권이 없어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姬噲가 지능이 낮고 허영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禪讓”하게끔 했다. 蘇代는 燕王을 찾아서 말했다. 나 蘇代는 동주에서 학술이 낮은 사람이다. 듣기에 의하면 대왕은 모두 덕행이 높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농구를 버리고 대왕님을 찾아왔다. 趙國의 도성인 邯鄲에 와서 내가 본 동주는 들은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는 나의 포부와 맞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는 燕國에 와서 대왕님과 대신들, 하리를 보고서야 대왕님이 왜 현명한 군주라고 불리는지를 알게 되었다. 蘇代는 당시의 명사로서 소대의 칭송을 받은 黃帝는 매우 기뻐하였다. 왕은 묻기를: “자네는 어째서 내가 현명한 군주라고 믿는가?”라고 물었고, 蘇代는 답하기를: “듣는데 의하면 현명한 군주는 모두 다른 사람이 지적한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했다. 대왕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기원전 318년에 燕國의 국왕은 楚, 韓, 魏, 趙와 연합하여 당시 날로 강성해져는 秦國을 징벌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는 모두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여 연합군은 조직력이 저하했으며 전쟁에서도 패했다. 燕國의 국왕은 燕國이 지리적 위치가 좋지 못하고 인구가 적은 것을 인지하였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위협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개혁을 통해 나라

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子之라는 사람을 영입하였다. 그는 이 사람을 한동안 관찰하고 서슴없이 재상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일정한 기간의 정돈을 통해 국가 기관의 효율이 향상되고 관리들의 부패 현상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당시 국왕인 姬噲는 적지 않은 권력을 子之에게 부여하였다. 戰國의 저명한纵横가 蘇秦은 동생 蘇代가 있었다. 蘇秦이 여섯 나라를 통합하여 권력을 휘두르자 그 동생도 이에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纵横지술을 연구하였다. 蘇代는 당시 蘇秦의 뒤를 이은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蘇代는 子之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 子之와 蘇代 그리고 강호의 은둔자는 공모하여 姬噲를 하야시키려 했다. 그리고 지자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군권이 없었다. 그리하여 병변을 일으킬 수 없었는데, 그들은 姬噲가 지능이 낮고 명예욕이 높은 특징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약점을 통해 姬噲가 “禪讓”하게끔 하였다. 蘇代는 燕國의 왕을 찾아 자신은 동주의 학술에 대해 낮은 식견은 갖고 있었는데, 중의 군주가 덕행이 뛰어나다고 하여 찾아갔지만, 생각과는 달라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오늘날 燕國에 와서 대왕과 대왕님의 대신들을 만나서야 군주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蘇代는 당시의 명사였는데, 그의 칭송을 받은 燕國의 국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어떻게 현명한 군주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소대는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현명한 군주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자신을 칭송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하여 제가 대왕님의 부족한 점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齊國과 趙國은 모두 燕國의 역적이다. 그러나 楚國과 魏國은 燕國의 후원 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왕님은 적국을 도와 자신을 도운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필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으며 대왕님의 실수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실수를 알리지 않은 대신들은 모두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燕왕은 듣고: “내가 듣기로 齊國은 방어할 지형이 좋고, 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나?”라고 물었고, 蘇代는 대답하기를: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淸濟가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냐? 백성들은 이미 도탄에 빠져 있어 장성이 있다 한들 어떻게 방어하겠느냐? 교만한 군주는 눈앞의 이익만을 살펴보고 망국의 대신들은 그 탐욕을 숨기지 못합니다. 대왕님이 만약 어떤 공자를 齊國에 인질로 파견하고, 보물을 통해 齊國의 대신들의 마음을 사면, 우리는 아마도 齊

國을 격파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燕國의 국왕은 매우 기뻐하며 소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공자를 齊國으로 보내 인질로 하였다. 그리고 蘇代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였다. 한번은 蘇代가 귀국하였는데, 姬嚮는 蘇代에게 묻기를: “齊國의 군주는 독재적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은 齊國의 군주가 제후를 통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蘇代는 대답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蘇代는 대답하기를: “자신의 부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였다. 蘇代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姬嚮가 子之를 중용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면답이 있는 후, 姬嚮는 子之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子之는 蘇代에게 금은보화를 통해 보답하였다. 이 때 강호에 은둔하던 자가 등장했다. 그는 燕의 군주를 보고 바로 燕國의 모든 권력을 子之에게 물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燕國의 국왕은 동의했다. 燕왕은 子之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었고 子之는 보다 강대해졌다. 그러나 태자를 설득해야 했다. 姬嚮가 선양하면 태자는 제일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은둔자는 다시 姬嚮를 찾아 말하기를: “大禹는 伯益을 계승자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태자를 임용하였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큰 살육을 일으켰다. 그래서 후인들은 大禹를 부정하고 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전쟁은 그 자식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당신은 국왕의 자리를 子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문무백관에는 태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명의 적으로 선양일 뿐 향후에는 다시 태자가 집권할 것이요. 이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을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당시 어리석은 姬嚮는 어쩔 수 없이 戰國에서 삼백 석 이상의 봉록을 받는 관원을 모두 수거하여 子之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子之는 자신이 집권하고, 姬嚮는 겸손하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堯舜과 같다는 칭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국과 많은 정치적 업적이 뛰어났던 戰國의 강국이 이처럼 황당한 선양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은 굉장히 유치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子之는 비록 계략을 통해 왕위에 올랐으나 모든 국면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가 삼년 동안 집권한 시기에 내전만 삼년 치렀다. 燕國은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던 燕國에게 있어서는 방대한 숫자이다.

“禪讓”사건이 燕國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燕國의 국민들은 子之가 집권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로 인해 齊國, 中山 등의 나라가 출병하여 간섭하게 된다. 燕國의 백성은 子之의 행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성문을 열자, 백성들은 齊나라 군대를 열정적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齊國의 도성은 함락된다. 燕王은 자신이 초래한 망국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살을 한다. 子之는 포로가 되어 칼로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 그리고 蘇代는 평생을 齊國을 위해 복무한다. 그는 다시 燕國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齊國에서 중용을 받는다. 이러한 군주의 “禪讓”은 국내외의 많은 모순과 투쟁을 야기했다. 그리고 심지어 燕國이 망국하게끔 했다. 燕왕, 子之 및 태자는 모두 전란에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趙國은 公子職을 燕王으로 부임하는데, 그가 바로 燕昭王이다. 이처럼 황당한 “禪讓”의 논란이 燕國에서 발생하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燕國의 왕도 전통 하에 형성된 迂政之風이다. 燕國의 군신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모두 성실하지 못했고 국제적인 형세에 대해 두려움만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성한 도덕을 통해 잔혹한 이익 충돌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진정한 변법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적 풍조가 야심가들이 권력을 찬탈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기원전 311년에 燕昭王은 국가가 패망시에 즉위한다. 국가의 수치스러운 국면으로 인해 燕昭王은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 하여 진정한 변법을 하게 된다. 그의 집권으로 인해 연 문화의 발전은 고조에 이른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현명했고, 군사적으로도 정확한 결단을 내린 탓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체현되고 있었다. 그가 즉위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는데, 《史記·燕召公世家》의 기록에 의하면 “禪讓”의 사건이 후에 다음과 같이 현상이 나타난다.

몇 개월의 교전을 거쳐 수만 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백성들은 더 이상 신임을 주지 않았다.

(代構難數月，死者數萬，衆人恫恐，百姓離誌⁶¹⁾)

그러나 사실 燕昭王은 주저하지 않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혁신하고 燕國의 부

61) 上揭書, 《史記·燕召公世家》, p.1256.

흥에 심열을 기울였다. 그는 齊國인들의 침입을 燕國의 제일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齊國에 대해 보복하고 燕國을 부흥시키는 것을 그의 목표로 삼았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였다. 마치 사마천이 《史記·樂毅列傳》에 기록한 것처럼 “燕昭王은 齊國을 원망했고 하루도 그 원망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燕昭王도 자신의 국력이 미비함을 인지하고 있어 충신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燕昭王의 설득으로 燕國에는 당시 많은 현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燕國의 군사에 이바지하여 국토를 넓히고, 燕國의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燕國의 문화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이바지했다. 총체적으로 燕昭王은 정치적으로 많은 현인들을 등용하여 燕國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연 문화 발전의 고조는 바로 樂毅이 齊를 징벌하러 나서면서였다.

당시 燕國에 와서 燕昭王을 보조하던 많은 사람들 중, 제일 출중한 것으로는 당연인 樂毅이라 할 수 있다. 樂毅은 명장인 樂洋의 후대이다. 재학이 출중하고 병법에 능했다. 그는 趙國의 관리로 부임한 적 있다. 趙國의 내란을 피해 위국에 왔었다. 후에 燕昭王이 인재를 구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마음을 변경하여 오게 되었다. 마침 樂毅이 魏王의 사신으로 燕國에 파견된 적 있다. 昭王은 樂毅을 매우 융숭하게 접대하였는데, 이는 樂毅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이름을 감내하고도 燕國에 남아 있기로 했다. 昭王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국정과 병권도 부여했다. 그리고 그가 변법하는 것을 지지했다. 樂毅은 燕國의 법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부패가 심한 것을 두고 법률을 규정하였다. 관리에 대한 심사와 통제도 강화하였다. 그는 고찰을 통해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벼슬을 준 다의 원칙을 확립하여 혈연이나 지연을 통한 인재 등용 제도를 포기했다. 당시 정권을 찬탈하려는 많은 일당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법도를 잘 준수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 일정한 장려를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군사적으로는 樂毅은 전술을 중요시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燕國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燕昭王은 樂毅의 도움으로 28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 시기에 국가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실력도 향상되었다. 燕昭王이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많이 등용

했던 것은 최종적인 목표 즉 齊國을 격파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28년이라는 준비 시간을 통해 齊國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기회를 틈 타 기원전 284년에 樂毅를 장군으로 齊國를 토벌하였다. 이로 인해 齊國의 군주는 유망을 떠나게 된다. 齊國의 수도를 공략하고 그 밖의 칠십 여개의 성지를 공략했다. 燕國은 樂毅를 통해 齊國를 토벌하고, 정세를 바꾸게 된다.

燕 문화의 고조는 군사적으로 秦의 東胡를 타파한 것이다. 燕昭王시기 당시의 북방의 소수민족인 東胡를 대패시켰다. 이로써 국토를 천리 확장하였다. 그리고 漁陽, 上谷, 遼東, 遼西, 右北平 주군을 설치하고, 장성을 쌓아 東胡의 침입을 막았다. 이는 燕國의 국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말하고 있거니와 燕國의 문화의 전파와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燕國의 화폐의 출토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당시 燕國의 대외 무역의 발전을 말해 주고 있다.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면 燕國의 화폐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河北의 하도 유적지에서 선후로 열 몇 곳에서 燕明刀가 총 33315개가 출토되었다. 많은 화폐가(燕刀幣⁶²⁾) 출토된 것도 있지만 그 범위도 상당히 넓다. 河北, 河南, 北京, 山西, 內蒙古, 山東, 遼寧 등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심지어 朝鮮과 日本에서도 발견되었다. 발굴된 수량과 그 분포된 지역을 보더라도 당시 燕國의 상업 무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燕國의 太子丹과 荊軻는 燕의 문화를 극도로 발전시킨 두 명의 대표적 인물이다. 기원전 232년에 秦國에서 인질로 있던 燕國의 太子丹이 燕國으로 도망간다. 秦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던 그는 무사들을 훈련시켰다. 용사 田光의 추천으로 그는 荊軻를 상경으로 모신다. 기원전 227년에 太子丹은 荊軻를 파견하여 秦王을 죽이도록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기원전 22년에 秦은 燕을 멸망시킨다. 여섯 나라에서 燕國은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한 나라이다. 그리고 荊軻가 秦王을 죽이려 했던 것은 최후의 장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漢書·地理志上》에는 말하기를: “太子丹은 용사들을 기르고 후궁의 미녀들에 관심이 없었다.” 이는 太子丹의 행적이 후세에 끼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의 방식은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효했다. 그리고 당시의 태부는 제기하기

62) 石永士, 王素芳, <試論燕刀幣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 1983, (6), p.79-80

를 각 제후들을 연합하여 秦國에 대항하자고 했다. 그러나 太子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세월을 함께 했지만 역량이 부족했다.

(曠年相守, 力固不足)⁶³⁾

그의 선택은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荊軻는 《史記·刺客列傳》에 기록된 다섯 명의 협객이 있는데, 荊軻는 그 중 한 명에 속한다. 太史公은 말하기를: “荊軻를 포함한 다섯 사람은 그들의 시도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모두 후세에 길이 남을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용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천 백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先秦의 문학가 좌사는 荊軻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荊軻가 燕의 도성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호기가 북받쳐 高漸離과 함께 “애가”를 불렀다. 마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높은 소리로 불렀다.

(荊軻飲燕市, 酒酣氣益震。哀歌和漸離, 謂若旁無人) ⁶⁴⁾

또한 初唐四傑의 하나인 駱賓王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역에서 燕丹은 荊軻를 보냈다. 용사의 절개가 하늘을 찢었고, 장면은 비장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오로지 역수만이 겨울의 추움을 알리고 있었다.

(此地別燕丹, 壯發上冲冠。昔時人已沒, 今日水猶寒) ⁶⁵⁾

太子丹의 정신과 荊軻의 지향이 합쳐져 燕 문화의 고난을 이겨낸 격변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성숙한 燕 문화를 형성하여 이른바 ‘비분강개한 절개’라는 독특한 풍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 외에 농업, 축산업, 상업 무역과 화폐 방면으로 戰國시기 燕國과 趙國 이 당시의 칠웅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사회경제의 발전과 관련이 많다.

《戰國策·燕策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3) 呂世浩, <敵我之間, 壹場歷史的思辨之旅 3 >, 平安文化有限公司, 2015, p.137.

64) (西晉)左思, 《咏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p.305.

65) (唐代)駱賓王, 《於易水送人》.

蘇秦은 합종의 일을 두고 북방에 가서 燕國의 燕文侯를 설득하려 했다. “燕國의 동측에는 朝鮮과 遼東이 있다. 북측에는 林胡와 樓煩이 있고, 서측에는 雲中과 九原이 있다. 남측에는 呼沱와 易水가 있다. 국토가 종행으로 2000리를 가로지르고 있고 군대는 몇 십만이 있다. 전채는 칠백 여대가 있고 말은 육천 필이 있다. 양식은 십년을 견지하고도 부족함이 없다.

(蘇秦將爲縱，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呼沱，易水。地方二千余裏，帶甲數十萬，車七百乘，騎六千疋，粟支十年) 66)

한편에 《史記·蘇秦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재 山東의 각 나라는 어느 나라도 趙國만큼 강대하지 못하고 있다. 趙國의 토지는 방원으로 이 천리이고 정예 군대만 수십만에 이른다. 전차는 몇 천 대 보유하고, 말은 수만 마리가 있다. 군량은 십년을 견지할 수 있다.

(當今之時，山東之建國莫強於趙。趙地方二千余裏，帶甲數十萬，車千乘，騎萬匹，粟支數年) 67)

이러한 수사는 과정적일 수 있으나 “粟支十年”，“粟支數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식량 저장의 충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두 나라의 농업 생산이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고, 역사 고적의 기록에서 두 나라의 차별을 알 수 있다. “車七百乘”와 “車千乘”；“騎六千疋”와 “騎萬匹”；“粟支十年”与 “粟支數年”。燕國은 이러한 기록 외에 구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서술을 많지 않았다.

燕國은 지정학적으로 河北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농경 구역과 축산 구역이 결합되는 지역이다. 비록 春秋戰國시기의 생산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燕國에는 아직 많은 철제 농기구가 출토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농업 발전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측에는 발해가 있고 산지가 많아 주로 “魚鹽棗栗”과 같은 것이 생산되었다. 이는 齊魯와 廣東과 같이 발달한 농업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燕國의 경내에는 상당한 축산 구역이 있어 축산업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 준다. 燕國의 서북부의 산지는 축산업이 발전하기에 瑠璃河이다. 북방의 초원 역시 유목에 瑠璃河이다. 그리고 인접한 동화와 산제 등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史記·貨殖列傳》에는

66) (漢)劉向集錄,《戰國策·燕策壹》,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p.1039

67) (漢)司馬遷,《史記·蘇秦列傳》,北京,中華書局,1959,p.2247.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燕, 代 지역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고 누에를 키웠다.

(燕代田畜而事蠶)⁶⁸⁾

燕國의 축산업은 특히 말을 키우는데 특출했다. 《戰國策·趙策二》에서 蘇秦이 趙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왕이 나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燕國은 반드시 좋은 말을 육성할 수 있는 토지를 헌납할 것입니다.

(大王誠能聽臣, 燕必致旃裘狗馬之地)⁶⁹⁾

이러한 특징은 모두 燕의 축산업이 매우 발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상품 경제는 농업, 수공업 등의 생산 발전의 기초 하에 발전하는 것이다. 고대에 사람들의 교환 방식은 물물교환이었다. 《孟子·公孫醜下》에는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꾼다.

(以其所有易其所無)⁷⁰⁾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물물교환의 방식은 비교적 원시적이다. 그러나 일련의 발전을 통해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가 만들어진다. 戰國시기 상품 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한다. 당시 동, 서, 남, 북, 네 방향의 물품은 끊임없이 교환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된다. 농업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연, 조 두 나라의 수공업, 상업의 발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燕 지역의 수공업에서 생산하는 종류로는 옥, 제골, 도자기, 청동 제품, 철기, 금은기, 방직품 등이 있었다. 趙 구역의 수공업에도 철물 제조, 동 제조, 도자기 제조, 양주업, 옥석업, 방직업 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로 비교할 때 서로 비슷한 듯하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趙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다. 철의 제조를 예로 들 때, 戰國에 진입한 후, 사회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는

68) 上掲書, 《史記·貨殖列傳》, p.3270.

69) (漢)劉向集錄, 《戰國策·趙策二》, 上海古籍出版社, 1978, p.636.

70) (東漢)趙歧, 《孟子註疏》(上冊), 北京, 中華書局, 1957, p.199

철물 제품의 응용과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 생산력 중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戰國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철물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燕國의 철물 제조업도 빠른 발전을 한다.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면 燕國의 지역에서 발견된 戰國시기의 철물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분포 범위도 넓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 그 중에서 출토된 철물로 볼 때, 河北河北易縣燕下都和 河北興隆유적지는 戰國범위로 볼 때에도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易縣燕下都유적지는 오늘날의 河北省의 易縣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燕國의 남측이다. 燕下都의 유적지는 면적이 매우 크다. 여기에는 수공업 작업 구역, 시민 거주 지역, 궁전과 묘지 등이 있다. 철물 제조의 유적지는 수공업 작업 구에 위치해 있다. 여기의 22호 유적지에서는 적지 않은 농업 생산 공구가 발견되었다. 23호는 유적의 면적이 제일 크다. 1953년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일련의 戰國시기 철물을 발견했다. 이러한 철은 모두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그 부근에서는 철 도끼와 두 개의 철 삽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과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화에서, 두 나라의 상업도 많은 번영을 가져왔다. 戰國시기, 진국만이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했을 뿐, 기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노상을 같이 취급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의 상인들은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고 도시는 날로 번성해졌다. 일부 도시는 상품의 집성지가 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화물은 주로 교통을 통해 서로 운송하곤 하였다 이로써 교통이 각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대가 되었다. 당시의 연의 도성인 薊城은 중요한 상업적 도시였다. 이는 당시 요동, 요서, 서북평, 상고군 등의 중심 도시를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삼진, 중산, 제의 제후국 심지어 朝鮮, 日本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史記·貨殖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燕國의 옛 도성 쩌는 말해, 동근 비석 사이의 도시이다. 남은 齊와 趙를 인접하고, 동북은 胡人들과 인접했다.

(夫燕亦勃碣之間壹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⁷¹⁾

또한 《鹽鐵論》에도

燕國의 薊지역은……부유하고, 천하의 이름난 도성이다.

(燕之涿薊……富冠海內, 爲天下名都) 72)

라고 하였다.

燕國의 화폐 출토량은 趙國 만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량에 있어서는 만여개가 되었다. 燕國의 화폐는 주로 刀幣이었다. 燕國의 화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청나라 이후 화폐학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통일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 “易”, “匱”, “明”에 대한 해석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년에 진용문 선생이 이를 “日月”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의 학자의 주장을 따르기로 한다. “明”은 燕明刀이다. 이러한 燕明刀는 당시에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유통되었다. 이는 역대의 고고학 발견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발견된 명도는 대체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화폐는 만여개가 되었다. 그 수량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燕明刀의 분포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 燕國의 경내에서 뿐만 아니라 齊, 趙, 中山國의 경내에서도 발견되었다. 제일 멀게는 朝鮮과 日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모두 燕國의 상품 경제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燕國의 화폐는 明刀幣를 제외하고도 尖首刀幣도 있었다. 戰國의 만기에는 燕國은 趙國의 화폐도 제조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패와 원전도 제조하였다. 단지 이러한 화폐가 燕國의 화폐의 주요한 화폐는 아니었다.

2, 趙 문화의 형성, 발전과 建國

1) 趙 문화의 형성과 건립

趙 문화의 시간 범위를 놓고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의 상한계를 趙氏王朝의 건립으로 정한다. 즉 趙國의 성립은 趙國 문화의 형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趙國

71)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65.

72) (漢)桓寬, 《鹽鐵論·通有》, 北京, 中華書局, 1954, p.4.

건국 연한, 즉 趙國의 시작 년대에 대하여 학술계에는 여전히 서로 다른 이해와 의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접 趙國 문화의 한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趙國 건국 연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4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기원전 490년 전후 趙簡子시기 특히 기원전491년 趙簡子가 邯鄲을 점령하고 趙國는 晉의 대신 이었지만 실지는 晉권이였으며 제후들과 함께 읍을 봉했다.⁷³⁾

둘째, 기원전 475년 趙襄子의 왕위를 계승하다. 이는 趙國의 실제 건립을 나타냈다.⁷⁴⁾

셋째, 기원전 453년 韓, 趙, 魏 세집이 晉國를 분할하였는바 이는 趙 씨가 실제적으로 제후가 되었음을 나타냈다.

넷째, 기원전 403년 韓, 趙, 魏가 정식으로 周王의 입명으로 제후가 되었고 趙 씨는 진정한 제후가 되었다.⁷⁵⁾

실제상 위의 4가지 관점 사이에 서로 근본적인 모순은 없다. 전후 80여 년 동안이 바로 趙 씨 집단이 점차 나라를 성립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세 집의 독립은 晉國를 분할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분진이 입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예하면 趙 씨 집단이 발전하여 나라로 된 것은 많은 시간을 거쳤으며 趙國 문화의 형성도 많은 단계를 거쳤다. 대체적으로 생육 단계, 초보 형성 단계, 정식 형성된 성숙 단계 등이 포함된다. 趙國 문화는 晉문화의 모체 중에서 발전하는 시기는 趙國 문화의 생육 단계다. 세 집에서 晉國를 분할한 후 邯鄲으로 옮기기 전은 趙國 문화가 초보적으로 형성된 단계다. 수도를 邯鄲에 설립한 것은 趙國 문화가 정식으로 성립된 것을 나타낸다.

본고는 두 번째 의견을 수렴한다. 그 근거는 기원전 476년은 周元王 원년이다. 司馬遷은 《史記》에서 이 해를 戰國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는 孔子가 만든 《春秋》 말년(기원전 479년)과도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 趙襄子의 계승을 趙國의 건국으로 본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된다. 왜냐 하면 趙襄子의 계승은 戰國이 시작된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이를 趙國의 건립 해로 보는 것

73) 孫繼民, 郝良眞, 《試論戰國趙文化構成的二重性》, 《趙國歷史文化論叢》, 河北, 人民出版社, 1989年, 張京華, 《燕趙文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5.

74) 李學勤, 《趙文化論叢》序, 《趙文化論叢》, 河北, 人民出版社, 2006.

75) (漢) 司馬遷, 《史記·晉世家》, 北京, 中華書局, 1959, p.1687.

은 비교적 적당하다. 그리고 《史記》로 볼 때 司馬遷은 《趙世家》에서 趙襄子에서부터 趙氏기년을 사용했다. 趙襄子 이전 趙 씨의 모든 활동은 여전히 晉國의 기년을 사용했다. 이는 바로 司馬遷이 趙襄子の 계승을 趙 씨 국가가 晉國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趙襄子 이전 모두 晉國 대신의 신부이다. 趙襄子부터 바로 趙 씨 국가의 군주이었던 것이다.

만약 기원전453년 세 집의 분점으로 趙國의 정식 입국의 시작점으로 보며 기원전 661년 晉獻公이 趙夙에게 耿지를 주는 것은 趙 씨의 晉國입가의 시작으로 보면 耿지입가부터 분점입국까지 趙 씨 집단은 晉國모체 중에서 생육 발전을 긴 200여 년 동안 하였다. 이 200여년의 春秋중후 단계는 晉國의 번영기이고 동시에 趙國 문화가 晉문화 모체 중에서 발생 생육 단계다. 趙國 문화의 발생의 계기는 趙 씨 집단이 晉國에서의 정치적 쟁기이고 趙國 문화의 발육의 기초와 표현은 趙 씨 집단이 晉陽과 太行山 이동 지구의 적극적 경영이다. 다방면으로 趙 씨 집단의 위치로 보면 趙夙의 耿, 趙衰의 原, 趙武의 溫, 趙簡子の 晉陽은 모두 太行山 서쪽 황토 고원 복지의 분하 혹은 심히 유역 晉國 수도와 멀지 않은 지역이다. 이것은 바로 趙 씨 집단과 趙 문화가 晉國과 晉 문화의 모체 중에서 생육 발전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趙簡子が 적극적으로 더 먼 太行山 이동인 동방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邯鄲과 柏人등 중요한 도시의 점거는 趙 씨 집단이 晉國 모체를 버리고 신생을 원하는 표징이 되고 趙簡子が 邯鄲을 점거한 것은 趙 문화의 발육이 기본적으로 성숙되었음을 표징하고 趙國 문화가 晉 문화의 모체에서 열변하여 신생은 멀지 않았다.

趙 씨가 晉에 진입한 이후 비록 일정한 굴곡도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이는 상당히 빨리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趙盾, 趙武, 趙鞅 등의 기획 하에 趙 씨의 강성은 확연하게 나타난다. 趙襄子が 계승한 趙國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중무를 수복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국토를 많이 확장하였다. 이러한 영토 확장은 모두 趙襄子が 집권한 초기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그가 집권한 후 이미 魏, 韓 두 나라와 함께 진국 영토의 분할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체로 趙國의 남부와 동부 및 기타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趙襄子 이후는 趙獻侯이다. 趙獻侯는 15년을 재위하였다. 비록 시간은 길지 않으나 趙國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즉 趙國의 도성을 晉陽에서 中牟으로 옮긴 것이다.

애초에 조실이 晉陽을 정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은 주로 후방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晉國의 북방, 특히 代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었다. 그러나 전쟁이 끊임없이 승리함으로써 趙 씨는 太行山의 동측에서 대량의 국토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토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戰國 이후, 중원에 대한 찬탈이 격해지자, 趙國의 통치자는 만약 진양을 계속 국가의 정치 중심지로 삼을 경우 열강과의 정치 외교 경쟁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형세 하에, 각국은 영토와 인구의 쟁탈을 중원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특히 黃河의 하류 지역인 魏, 趙, 衛, 楚, 齊 등 국가와의 변경 지역은 쟁탈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趙國의 통치자가 중심을 太行山 동측으로 옮긴 것은 중원의 쟁탈을 위해서였다. 그 밖에 中牟지역이 중원과 가깝게 있어 중원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韓非子·外儲說左上》에서 趙襄子시기 이미 유명한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자신의 수양이 높고, 그 학식은 매우 깊었다.

(其身修甚, 其學甚博)⁷⁶⁾

또한 《呂氏春秋·博誌》에 따르면 유명한 사인 寧越라는 사람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中牟출신이었다.

(中牟之鄙人也)⁷⁷⁾

그는 中牟에서 15년을 고학한 후 周에 가서 관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朝鮮루가 中牟로 도성을 옮긴 것은 趙國의 정치와 문화의 발전에 유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趙獻侯 이후는 趙烈侯이다. 기원전 408년에 즉위하였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후로 수봉 받는 일이다. 즉 趙國이 정식

76) (戰國)韓非, 《韓非子集解·外儲說左上》,北京,中華書局,1954,p.209.

77) (漢)高誘註, 《呂氏春秋·不苟論》,北京,中華書局,1954,p.314.

으로 제후국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戰國 초년의 형세를 적용하여 趙國의 정치 경쟁에 대해 일련의 개혁을 하였다. 趙烈侯가 제후로 분봉 받은 일은 趙國의 역사에서 매우 큰일이다. 이는 趙國의 발전에 광대한 역사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趙와 魏, 韓 등은 모두 周천자로부터 제후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역사가 춘수로 발전하여 西周시기의 예제는 모두 붕괴하였다. 그리고 세 나라에서 晉國을 분할할 때, 경대부의 역량은 이무 각 제후국과 경쟁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 晉을 분할한 후, 周천자는 더 이상 공격을 가할 역량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 생존의 고려고 세 나라가 결합하여 齊國를 징벌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세 나라를 제후로 분봉하였다. 이 일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周의 예제 기강은 이미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司馬光은 《資治通鑒》에서 이에 대해 심각한 평가를 하였다.

三晉은 제후에 속했는데, 三晉이 예절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천자 자신이 이를 파괴한 것이다.

(三晉之列於諸侯，非三晉之壞禮，乃天子自壞之)⁷⁸⁾

다른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상국공 仲連이 일련의 개혁을 한 것이다. 趙烈侯의 개혁은 정치 경제 방면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일련의 진보된 임명제도와 감찰, 개혁 제도의 개혁을 하였다. 이는 春秋이전의 귀족에 대한 충격이라 할 수 있고 戰國시기의 관료정치에 생성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다. 牛畜, 荀欣, 徐越 그들은 중위, 내사 등에 임용되었는데, 여기서 중위와 내사 두 직위는 모두 秦이 통일한 후 중국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하여 중국의 역사에서 사용기간이 길고 많은 영향을 준 관직이라고 본다. 趙烈侯는 세 명의 관리를 임명하였는데, 이는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趙國의 관료 체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문헌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의 실행은 戰國초기에 각 제후국들의 경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고 趙國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로써 趙國의 전기의 문화 발전의 국면을 살핀다.

78) (宋)司馬光, 《資治通鑒·周紀壹》(卷第壹),北京,中華書局,2007,p.3.

烈侯 이후, 敬侯, 成侯, 肅侯 등이 인접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趙敬侯 원년에 즉기원전 386년에 趙國의 도성을 邯鄲으로 옮긴다. 이는 邯鄲이 趙國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다. 이로써 趙國은 빈번한 도성 이전의 국면을 종료한다. 邯鄲에 옮긴 후 趙國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바로 제후와의 경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趙國의 국력을 의지하여 중원으로 계속 확장하였는데, 북방의 中山과의 전쟁도 벌였다. 成侯는 敬侯의 아들이다. 成侯 삼년에 太成午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적인 영토 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모두 敬侯 시기의 전략을 따른 것이다. 끊임없는 중원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통치 기간에 “邯鄲之難⁷⁹⁾”이 발생한다. “邯鄲之難”은 趙國이 영토를 잃는 비극은 아니었지만 趙國의 국력이 많이 손상당한다. 趙國은 중원의 확장도 이로 인해 중지된다. 趙成侯는 이러한 상황에서 죽고 趙肅侯가 계승한다. 그는 계속 중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趙肅侯가 즉위한 후 수차례 魏國에 파병하였다. 십오 년에는 다시 파병하여 魏國의 黃邑를 침공했으나 실패한다. 이때 趙肅侯는 계속 중원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여러 제후국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영토 확장의 계획을 포기하고 趙國은 그 남부에 장성을 쌓는다. 장성의 건설은 趙國의 남부 지역에서 확장이 아니라 방어로 변모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趙國이 남으로 확장의 역사는 이로써 끝난다. 이는 趙國의 한 단계가 마감됨을 말해 준다. 이 시기는 趙 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시기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趙國의 국력이 진일보 발전하여 강성해짐을 알 수 있다. 趙는 점차 각 제후들과의 영토 전쟁과 인구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중원에서 자신의 영토를 끊임없이 확충한다. 비록 중간에 실패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趙國의 국군은 모두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趙烈侯가 진행한 각종 개혁도 趙國의 문화의 발전에 바탕이 되었다.

趙敬侯시기 邯鄲을 수도로 설립하고 趙國 중심을 점차적으로 황토 고원 북지로부터 평원으로 옮겨가며 적극적으로 중원을 쟁탈하였다. 이는 趙國 문화의 정식 형성을 표징한다. 趙國 문화가 邯鄲에서 정식 형성된 이유는 아래 몇 가지 방면이 있다.

첫 번째, 수도를 邯鄲으로 옮긴 것은 趙國의 정치적 핵심이 동쪽으로 옮긴 것

79) (西漢),劉向,《戰國策·齊策壹》,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p.458.

을 나타내고 太行山東麓지력의 통치는 최종 공고하여 이는 趙國 문화가 장기적으로 안정하고 번영한 토지가 되었다. 이는 또 趙國 문화가 발전부터 성숙된 표징이 이었다. 邯鄲은 예전부터 晉趙 씨 집단이 太行山東麓지역이 경영하는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簡子로부터 邯鄲에 대하여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趙정식이 제후로 되어, 새로운 趙國가 중원에서 새로운 기점과 구조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邯鄲은 趙國와 趙 문화의 새로운 기점이 되었다. 이 새로운 기점은 趙國 문화의 핵심지역을 太行山東麓의 평원 지역으로 정하였다. 이 변화는 지리적 위치와 지모적 형태에서 晉 문화와 거리와 구별이 형성되었고 이로부터 趙國 문화는 晉 문화를 멀리하였고 이는 趙 문화의 정식 성립에 지리적 기초가 되었다.

두 번째, 邯鄲을 수도로 성립은 趙 문화를 안정된 발전 시기로 진입하게 하였다. 그전에 趙國 정치 중심이 太行山東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안정하지는 않아서 문화의 안정 발전과 창신에 영향 주었다. 邯鄲城이 수도로 된 것은 趙 문화가 太行山東麓지역에 뿌리를 잡아 趙 문화의 발전 핵심으로 되게 하였다. 이 핵심은 邯鄲城이 보통 도시가 없는 강한 응집력과 흡인력을 가지게 하였으며 본지의 전통문화를 흡수하였으며 주변 특별히 중원과 북방 문화의 여러 인소를 채택하여 모든 문화 인소는 邯鄲城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인 성숙한 趙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趙 문화는 春秋시기 趙 문화를 구별하였으며 戰國초기 유년 趙 문화와도 같지 않은 점이 많은 완전한 새로운 문화인 戰國시기 중후기의 趙 문화가 되었다.

세 번째, 趙 문화의 원천은 春秋시기 晉 문화이고 戰國초기 시기의 초보적인 독립적인 발전을 거쳐 최종 邯鄲城에서 철저히 탈바꿈하여 새로운 春秋시기 晉 문화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다. 이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邯鄲城의 의의와 작용은 매우 컸다. 邯鄲城은 趙國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등 方面에서 여러 가지 方面에서 우선적이고 큰 응집력과 복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신번영의 거대한 동역이었다. 戰國초기의 유년 趙 문화는 적지 않게 晉 문화의 자국을 가지고 있는데 邯鄲城의 도시종합작용력의 영향하에 점점 없어지고 趙 문화는 점차 비약적 질적 변화를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2) 趙 문화의 성숙과 고조

趙 문화의 흥성은 趙國이 경제 하고 행한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趙簡子の 개혁 이다. 趙簡子는 趙 씨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기원전 513년 趙簡子가 鑄刑鼎을 만들었다. 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높은 鬲에 있는데 어찌 존귀한가? 당신은 무슨 직업을 지키십니까? 귀천이 무질서한데 어찌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로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기원전 493년, 그는 “적을 물리 친 자는 대부는 현, 하의 사는 군. 토 전 10만, 서인, 공, 상, 수, 인, 신, 예서, 고명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였다. 이 정책은 공상 업자와 서민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였고 공적에 따라 노예 신분을 없애는 정책은 사기를 북돋아 주고 군대의 전투력을 제고하였으며 동시에 계급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주계급이 군공을 통하여 진일보 장대해졌다.

둘째, 趙烈侯의 개혁이다. 趙烈侯가 재위하였을 때 (기원전408-400년) 趙國은 정식으로 제후국으로 봉직되었다. 魏國의 개혁은 魏國을 강대해지게 하였고 북방의 소수민족은 항상 趙國의 북부 변경을 침략했다. 이는 趙國의 중시를 일으켜 趙烈侯는 牛畜, 荀欣, 徐越의 건의를 받아 국내 내정을 개혁하고 趙國의 봉건 정책을 안정시키고 공고하였다. 인의를 제창하고 왕도를 행했다. 현명한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간부와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며 재물을 절약하고 공덕을 지켜야 했다. 재능과 실적으로 관원을 선발하고 검증하였다. 그리고 절약을 중시하고 경제를 발전하였다. 趙烈侯의 개혁은 趙簡子の 개혁을 계승하였다. 이는 趙國이 나라를 건립한 후 처음으로 한 개혁이며 전도 정책 공고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유명한 趙武靈王의 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인해 趙의 문화는 절정에 이른다. 이는 趙 문화의 성숙을 나타낸다.

趙武靈王은 趙肅侯의 자식이다. 기원전 325년에 즉위하였다. 그가 즉위한 기간은 27년이다. 그는 수많은 역사적 공적을 쌓았다. 즉 전기적 색채를 띠는 이른바 “胡服騎射”⁸⁰⁾ 개혁을 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함으로써 趙國은 장기적인 피동적 상황을 전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趙國은 제후국 사이에서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한다. 그리고 이번 개혁으로 趙國의 문화는 절정에 달성하며 이는 중국의 고대 화하 민족과 북방의 야만 민족의 문화의 융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

80) 上揭書, 《史記·趙世家》, p.1811

다.

戰國 초년에 각 제후국들은 서로 경쟁하며 각종 개혁을 한다. 여기에서 특히 秦國의 商鞅變法은 주목을 끈다. 秦은 이로써 제일 강성한 나라가 된다. 개혁은 당시의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였다. 이는 趙武靈王이 개혁하는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에 趙國은 주변의 환경이 날로 엄준함으로 깨달았다. 趙國은 북으로 燕, 東胡, 남측은 魏國, 동측은 齊國과 黃河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었다. 서측은 韓, 秦, 林胡, 樓煩, 그리고 中山國이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인접국과 부족들은 수시로 趙國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 趙武靈王이 즉위한 후 趙國은 수시로 인접국들의 침입을 당했다. 외부의 환경이 엄준하였다 그러나 趙武靈王은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군주여서 그는 다시 趙國의 국위를 부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즉위한 제 19년이 되는 해에 즉 기원전 307년에 명령을 내려 “遂胡服招騎射”(호복을 입고 승마와 활쏘기를 연습시켰다.)라 하여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趙國은 주로 세 가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우선 秦병이 동측으로 진공하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趙武靈王이 즉위한 15년 좌우에 수차례의 秦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趙國은 이로 인해 많은 병사와 토지를 잃었다. 趙肅侯가 즉위한 22년(기원전 328년)에는

趙疵이 秦國과 교전을 하는데 실패한다. 秦은 趙疵을 河西에서 죽인다. 이로서 국세를 되찾고 藺, 離石 두 지역을 탈환한다.

(趙疵與秦戰，敗，秦殺疵河西，取我藺，離石)⁸¹⁾

라고 하였다. 이 전쟁에서 秦은 趙를 대패시켰다. 趙의 대장인 趙疵를 河西에서 죽였다. 그리고 趙國의 하동인 藺, 離石, 두성 등의 성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趙武靈王의 9년, 10년 11년과 13년에 모두 진군의 침입을 당했다. 趙國은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당시 秦國이 趙國에게 얼마나 위협되는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는 齊, 中山의 서상이다. 趙肅侯 18년(기원전 332년)에는

81) 上揭書, 《史記·趙世家》, p.1803.

齊, 魏가 저를 공격하니, 黃河의 물을 끌어다 물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제와 魏군이 물러섰다.

(齊, 魏伐我, 我挾河水灌之, 兵去)⁸²⁾

라고 하였다. 이 전쟁에서 趙國은 하는 수없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다. 그래서 魏와 齊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趙肅侯 23년(기원전 327년)에는

韓舉는 齊魏와 교전하다 실패하고 桑丘에서 죽는다.

(韓舉與齊, 魏戰, 死於桑丘)⁸³⁾

라고 하였다.

趙武靈王9년에는

齊國은 觀澤에서 저를 이겼다.

(齊敗我觀澤)⁸⁴⁾

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趙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戰國시기의 中山國은 동북 측에서 燕國과 인접하고 기타 경계선은 모두 趙國 과 인접하였다. 《戰國策·齊策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과거 中山國은 戰國의 병력을 총력 하여 燕과 趙國을 막았다. 趙國의 침입을 물리친 장자는 燕國의 국경까지 나아가 상대 진영의 장군을 죽인다. 그때의 中山國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中山國은 두 개의 큰 나라와 상대하여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연속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용병의 전범이 되었다.

(昔者, 中山悉起而迎燕, 趙, 南戰於長子, 敗趙氏; 北戰於中山, 克燕軍, 殺其將. 夫中山千乘之國也, 而敵萬乘之國二, 再戰比勝, 此用兵之上節也)⁸⁵⁾

趙武靈王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82) 上揭書, 《史記》, p.1803.

83) 上揭書, 《史記·趙世家》, p.1803.

84) 上揭書, 《史記》, p.1804.

85) (漢)劉向集錄, 《戰國策·齊策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p.436.

中山國은 齊國의 강병을 믿고 저의 영토를 침범하고 백성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물을 끌어다 도성을 침몰시켰다. 만약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성은 없어졌을 것이다. 선왕은 이를 굉장히 수치로 여겼고, 이 복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先時中山負齊之強兵，侵暴吾地，系累吾民，引水圍鄙，微社稷之神靈，則鄙幾於不守也。先王醜之，而怨未能報也)⁸⁶⁾

이는 中山國의 세력이 비교적 강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趙武靈王이 즉위한 전후에 中山國의 침입이 빈번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趙國은 이러한 침입에 대해서 반격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趙武靈王은 이를 두고 “국가의 수치”라고 하였다.

다른 한 번의 위협은 호기 남하(胡騎南下)이다. 이 시기 북방의 林胡, 樓煩, 東胡는 후기의 진한 시기의 흉노만큼의 강력한 세력을 갖추지는 못했고 趙와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으나 매번 秦, 齊, 中山國 등과 전쟁을 할 경우, 三胡는 기회를 틈타 배후에서 습격을 가했다. 林胡, 樓煩은 지리적으로 趙國과 인접해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 말을 타고 趙의 서북과 북부 산지를 습격했다. 東胡의 기병 부대는 무궁 지문(오늘의 張家口외)에서 진입하여 趙의 代(오늘의 北蔚縣 동북 지역)를 습격하였다. 비록 趙國은 강대한 병사를 갖고 있었으나 이러한 三胡의 습격을 저항하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趙의 제일 치명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다. 趙武靈王은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고 이들이 습격하기 이전에 “而无强兵之救”⁸⁷⁾는 “亡社稷”(강대한 군대의 구원이 없으면 국가는 멸망하기 마련이다.)의 위협이 있음을 인지했다. 이러한 세 가지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趙武靈王은 남의 장점을 배우는 개혁을 진행한다. 그 개혁이라 함은 즉 북방의 유목민족을 본받아 기병을 훈련하고 기병 부대를 창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는 “易胡服”과 “習騎射” 두 가지로 구성된다. 易胡服이라 함은 전통적인 의상의 방식을 개혁한다는 것이다. 習騎射는 중원 지역에서 기존의 전차전과 같은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개혁한다는 것이다. 양자는 유기체로 서로 분리할 수 없다.

趙武靈王의 胡服騎射 개혁은 이하 9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기수를 부르다, 즉 우월한 조건으로 말과 활을 잘하는 젊은 남성을 공모

86) (漢)劉向集錄,《戰國策·趙策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p.658.

87) 上揭書,《史記·趙世家》,p.1806.

하여 기병으로 하였다.

둘째, 原陽에 기병 훈련 기지를 설립하여 기마와 사격 솜씨가 좋은 기병 부대를 훈련해 냈다.

셋째, 호병을 접수하였다, 루번 등 호인을 초모하여 趙國의 기병 부대에 참가하게 하여 호인으로 호인을 다스리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넷째, 호마를 사용한다. 즉 북방 소수 유목민족의 말을 趙國 기병의 말로 사용하였다. 이 말들은 무섭게 생겼고 잘 뛰며 내력이 있다.

다섯째, 기병의 무기는 긴 활과 창이다. 기병이 적과 먼 거리에 처하였을 때 긴 활을 사용하고 짧은 거리에 있을 때 검과 창을 사용한다.

여섯째, 모자를 바꾸다. 趙왕은 황관을 쓰고 군관은 무관을 쓰며 병사는 爪牙 모자를 쓴다. 이는 까만색 천으로 만들어져 북방의 풍사를 방지한다.

일곱째, 신발을 바꾸다, 말을 타고 초원을 지나는데 유리하다.

여덟째, 무거운 갑옷을 가벼운 갑옷으로 대체하였다. 원래 동으로 만든 갑옷도 가죽으로 만들어 쉽게 산을 넘었고 전쟁터에서 달리게 하였다.

아홉째, 호복을 입는다. 기병은 위에 재킷을 입고 아래에 바지를 입고 중간에는 대를 끼웠다. 귀족 대신은 허리에 고리를 차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순리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는 당시의 중원 문화를 숭상하고 소수민족의 문화를 멸시하는 趙國의 귀족들로부터 상당한 배척을 당했다. 전통적인 의상을 고집하고 전차의 전투를 고집하는 趙國의 군신들은 각종 담론을 했다. 이들은 개혁을 반대하고 배척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趙武靈王은 후퇴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상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최대한 개혁의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제거하였다. 결국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설득을 통해 개혁에 동의하게 된다. 그래서 武靈王은 원로들의 도움으로 조정 내외로 모두 힘을 모아 호복기사의 개혁에 총열을 가한다.

趙武靈王의 胡服騎射개혁은 성공적으로 실천되었다. 이는 趙國의 역사와 趙 문화의 변영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고대 민족문화의 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중원의 농경문화는 북방의 소수민족의 유목 문화를 수용한 전형적인 전범이 되고 있다. 중화 민족의 문화사에서 특히 중국의 고대 의상의 문화의 군사 문화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 축산업, 상업 무역과 화폐 방면으로 趙國의 농업은 燕國보다 조금 발달하였다. 이는 아마도 趙國의 통치자가 농업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농업의 기술을 부단히 개진한 결과이다. 그러나 趙國은

백성들의 의지가 약하고, 사치에 열중하며 생업에 관심이 적다. 농지는 많이 황폐되었다.

(民淫好末, 侈靡而不務本, 田疇不修)⁸⁸⁾

이 이유로 농업이 魏, 齊, 秦 등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앞서지 못했다. 戰國의 초기에 李悝가 魏國에서 변법을 하는데, 주로 농업의 발전과 생산이었다. 齊威王은 변법하면서 농업 생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秦國의 商鞅變法에서 그 핵심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것이다.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고 군공을 장려한다. 그리고 趙烈侯와 武靈王의 변법은 이러한 농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趙國은 단순한 농업 발전 방식이 아니었다. 趙國은 축산업의 발전 역사가 있다. 趙 씨의 선조들은 모두 전차와 관련된 일을 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해서는 많이 정통했다. 《漢書·地理誌上》에서는 趙國이 위치한 冀州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소와 양을 키우는데 유리하다.

(畜宜牛羊)⁸⁹⁾

“畜宜五扰”(여기서 五扰라 함은 말, 소, 양, 개, 돼지를 말한다). 《史記·廉頗肅相如列傳》 부록 《李牧傳》에는 이목이 대지(代地)에서

대대적으로 목축을 격려하여 백성들이 곳곳에서 목축을 하게 된다.

(大縱畜牧, 人民遍野)⁹⁰⁾

기록하고 있다.

88) 上揭書, 《鹽鐵論·通有》, 參考諸子集成(七), p.4.

89) (漢)班固, 《漢書·地理誌上》, 北京, 中華書局, 1962, p.1541-1542.

90) (漢)司馬遷, 《史記·廉頗藺相如列傳》, 北京, 中華書局, 1959, p.2450.

또한 《史記·趙世家》에는 蘇厲가 趙惠文王에게 보낸 서신에서 代馬, 胡犬 昆山の 옥을 삼보라고 하였다. 《漢書·地理誌上》에서는 대지의 雲中, 九原, 雁門, 定襄 일대는

백성들은 순수하고, 예의에 밝지 못했다. 사냥을 즐겼다.

(其民鄙樸, 少禮文, 好射獵)⁹¹⁾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趙國 영토의 삼분의 일은 축산업이나 농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 代지는 제일 중요한 축산업 기지라 할 수 있다. 우수한 말을 생산했다. 현재 內蒙古의 남부는 趙國의 축목 구역이라 보면 된다. 이처럼 趙國이 축산업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趙國의 축산업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趙武靈王이 “胡服騎射”개혁, 즉 강대한 기병 부대를 건설하고, 강대한 군사력을 비축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趙國의 철물 제조업은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趙國의 도성인 邯鄲에는 풍부한 철광석 자원이 있었다. 이러한 철광석 자원은 趙國의 철물 제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하여 邯鄲 도성은 당시 趙國의 제일 큰 철물 제조 중심지가 되었다. 건국 이후, 邯鄲 도성의 성내에서는 많은 철물 제조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邯鄲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邯鄲 시내의 유적지 외에도 교외의 각 주변의 현에서도 많은 철물 유적이 발굴되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는 趙國의 中牟(오늘의 허난 학벽서)고성에서 戰國 시대 秦漢시기 대형의 철제조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많은 농기구들이 발굴되었다. 이는 당시의 철물 제조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근년에 고고학에서 발견한 趙國의 철물 제조 유적지만 열 곳이 넘는다. 그리고 출토된 물건은 백여 개가 넘는다. 종류가 다양했는데, 이는 당시의 趙國의 철 제조업이 이미 상당히 발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밖에 철 제조의 중심으로서 邯鄲과 당시의 楚國의 宛, 齊國의 臨淄는 같은 유명세를 했다. 趙國의 卓氏, 郭縱은 철 제조로 치부하였다. 《史記·貨殖列傳》의 邯鄲인 郭縱이 철제를 사업으로 하고, 재산은 국가 와 비교할 수 있다 “以鐵冶成業, 與王者埒富⁹²⁾.”라 하였다. 수공업은 통해

91) 上揭書, 《漢書·地理誌上》, p.1656.

92)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59.

서 그의 재부는 당시의 봉건 군주와 비견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당시의 그 규모는 어마했음을 알 수 있다. 서한의 초년에 四川의 臨邛으로 옮긴 趙 씨는 선조도 趙國 사람이었다. 이는 모두 당시의 철 제조업의 번영을 말해 주고 있다.

燕國과 비교했을 때, 趙國의 여러 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四達之國”이었다. 趙國의 도성 邯鄲이 남북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戰國시대 가장 번영한 상업 도시의 하나였다.

邯鄲이라는 도시는 당시 지리적 조건과 위치는 우월한다. 북방은 燕國과 涿州로 이어지고, 남은 鄭國과 衛國으로 통한다. 邯鄲은 장수와 黃河사이에 있는 도시이다⁹³⁾(北通燕涿, 南有鄭衛, 邯鄲亦漳, 河之間壹都會也). 즉 남북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중심에 있었다. 서로는 上黨으로 동으로 河北평원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당시의 중요한 교통 중추였다. 그리고 滏水, 沁水, 漳水 등의 수상 교통으로 당시 邯鄲은 상업 무역이 발전한 중심지였다. 고죽의 상업 의식과 상업의 발전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보인다. 《史記·貨殖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齊, 趙 지역의 주민들은 영리하여, 투기를 통해 재물을 얻었다.

(齊, 趙設巧智, 仰機利)⁹⁴⁾

또한

백성들은 성격이 급해, 투기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자 했다.

(民俗懷急, 仰機利而食)⁹⁵⁾

그리고

趙國의 여성들은 예쁘게 단장하고 가야금을 틀면서, 긴 옷소매를 휘두르며 춤을 춘다. 춤추는 신을 신고, 예쁜 눈웃음을 지으면서 사람을 유혹한다. 천리 밖의 남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여들었다. 이들을 모집하여 재물을 얻는데 이용하였다.

93)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64.

94)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70.

95)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71.

(趙女鄭姬，設形容，揆鳴琴，俞長袂，躡利屣，目挑心招，出不遠千裏，不擇老少者，奔富厚也)⁹⁶⁾

《鹽鐵論·通有》에서는 趙國의 지역에는

백성들의 의지가 약하고, 사치에 열중하며 생업에 관심이 적다.

(民淫好末，侈靡而不務本)⁹⁷⁾

기록하고 있다. 이는 모두 趙의 민간 상업 의식의 진실 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상품 경제의 번영은 趙國이 여불위와 같은 대상인을 끌어들이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불위는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邯鄲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그 재부는 왕후와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 밖에 화폐 역시 상품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고고학에 의하면 趙國의 화폐는 매우 상당했고, 50년대에서 60년대에 趙國의 原平, 太原, 陽高, 交城, 祁縣 및 內蒙古의 涼城 등 지역에서는 趙國의 화폐 약 2만여 개가 출토되었다. 건국 이후에 출토된 東周의 화폐는 공식적으로 7만여 개가 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趙國의 화폐 출토는 東周 화폐의 근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대한 화폐의 출토는 당시의 趙國의 상품 경제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는 燕國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趙國은 삼진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晉國의 布幣형태를 계승한 국가이다. 각 지역에서 布幣를 만들 뿐 아니라 燕國과의 경제 왕래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趙國은 또 刀幣, 圜錢도 만들었다. 趙와 燕, 제의 화폐의 경제적 관계는 밀접했는데, 이는 당시의 邯鄲과 기타 주요 도시의 화폐 제조에서 알 수 있다. 戰國의 만기에 이르러서는 趙國은 이미 刀幣, 布幣를 병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趙國의 直刀는 戰國의 중기에서 만기에 燕國과 齊國의 刀幣의 영향을 받아 제조한 것이다. 그리고 圜錢은 晉國의 화폐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다. 그 사용 범위는 趙國의 서북 변경에서였다.

화폐의 제조의 종류가 많고 수량이 방대하며, 범위가 넓은 것은 모두 燕과 趙

96)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71.

97) 上揭書, 《鹽鐵論·通有》, p.4.

가 상품 경제에서 많은 발전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燕 趙 문화 유적

1) 燕 문화 유적

묘지는 가장 특별한 유적지이다. 이는 고고학의 제일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고대의 묘지는 사회와 역사의 각 방면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묘지를 사람 시체를 묻는 장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 다른 세계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을 도입했다. 그래서 고대의 묘지는 시체를 묻는 장소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신앙을 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琉璃河의 西周 도성의 유적지는 오늘날 北京의 房山區琉璃河鎮의 동북측 2.5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로 3.5키로, 남북으로 1.5키로, 면적은 5.25평방키로 이다. 이는 성지와 성외의 유적이 포함된 대형의 유적지이다⁹⁸⁾. 묘지는 그 핵심이다. 묘지는 琉璃河 유적지의 중부 黃土坡村의 북측 성지의 동측에 있다. 20세기 70년대에 발굴된 묘지는 61개에 달한다. 이러한 묘지들은 모두 장방형의 흙 묘지였다. 이들은 대체로 대, 중, 소의 유형이 있었다. 대형 묘지는 실내가 크고 묘의 통로가 있다. M202라고 불리는 묘는 통로가 없었다. 그리고 일부 대, 중의 묘지에는 전차와 말의 구덩이도 있었다. 어떤 소형의 묘지에도 차와 말의 기물이 있었다. 묘지의 크기는 그 수장 품의 적고 많음과 정비례를 이룬다. 수장품은 주로 관의 사이에 있었다. 어떤 중형의 묘지의 수장 품은 이층으로 된 곳에 놓여 있었다.

琉璃河의 묘지에서는 수레나 전차를 묻은 구덩이가 발견된다. 20세기 70년대에 발굴한 M202CH에는 말이 42말리 있었다. 그러나 많은 유품이 도난으로 인해 변별할 수 있는 것은 4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축은 14개나 발견된다. 이는

98) 張長壽, 殷璋璋主編, 《中國考古學·兩周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p.78.

아마도 일부 전차가 매장된 실제 수량을 말하기도 한다. 80년대에는 총 차마 갯이 21개 발굴된다. 그 중에서 M1100의 차마 갯에는 마차가 제일 많이 발굴되어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M1100차마 갯의 입구에는 정방향에 가깝고 동서로 5.7미터, 남북으로 6.1미터로 되어 있다. 갯 중에는 말이 총 14말리, 차가 5사대 발견된다. 말들은 모두 죽인 후 갯에 매장된 것이다. 말의 머리는 북측으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 차들은 모두 차바퀴를 뜯어서 벽에 기울여 놓았다. 차간은 밑부분에 있었다. 여기서 삼 호차에 발견된 우산 모양의 흔적이 있었다. 찻간의 직경 26밀리, 높이 25밀리의 우산대의 흔적이 있다. 주위에는 26개의 직경 2밀리의 목재로 된 활이 있다. 이는 대를 중심으로 직경 1.5미터의 우산이 있었음을 말한다. 우산의 밑 부분에는 세 개의 경사진 목재의 흔적이 있었다. 차례로 차가의 동북, 서북, 서남을 지탱하고 있었다.

琉璃河의 유적은 西周에서 비교적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고, 商 문화의 요소, 周 문화의 요소 및 토착 문화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묘지에서 발견된다. 묘지는 경광철로로 동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철로는 서를 I구역, 동을 II구역이라고 하였다. I구역에는 대체로 순장한 개, 비교적 큰 묘지에는 사람이 순장되어 있었다. 수장된 물품으로는 도자기, 鬲, 단지 등이 많았다. II구역에는 개가 적었고, 사람이 없었다. 수장 품은 鬲이나 단지 위주였다. 양자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I지역에서 출토된 동기에는 명문이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묘지의 周인이 아마도 殷國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II구역의 묘지는 주로 燕國의 제후를 중심으로 한 周國 사람의 묘지이다. 묘지에는 각종 유형으로 되어 있어 귀족의 묘지와 크고 작은 소형의 묘지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한계선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琉璃河의 묘지가 燕國의 공공 묘지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현재 발굴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東周의 燕國의 묘지는 약 169개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수량의 관장도 있다. 이로써 東周의 묘지를 네 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복합 통로 대형 묘지, 해당 유형의 묘지는 면적이 크고 80평에서 350평에까지 이른다. 둘째는 굴형의 동기 묘지이다. 묘지의 면적의 차이는 크다. 3.5평에서 50평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10평좌 우로 되어 있다. 이는 春秋만기에서 戰國의 초기에 해당한다. 대체로 작은 귀족의 묘지이다. 셋째는 도자

기와 작은 물품의 묘지이다. 이는 면적인 2평에서 4평까지 달한다. 이러한 유형의 묘지는 東周의 燕國 묘지를 주체로 하고 있다. 묘지의 周인은 일반적인 평민일 것이다. 연대는 주로 春秋의 중기에서 戰國의 중기로 본다. 넷째는 아무런 수장 품이 없는 묘지이다. 주로 서수 대마의 각 동네와 장자커우의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묘지의 면적이 매우 작아 1평에 못 미친다. 그리고 장구가 없는 것이 다수인데, 이는 빈민들의 묘지이다.

戰國 시대의 燕의 묘지의 초기에서 만기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묘지의 방향은 대체로 북을 위주로 하고 있었고 비율은 90이 넘었다. 묘지의 방식은 누운 상태가 많았다. 묘지의 형태도 흙으로 된 것이었다. 戰國의 중기의 燕의 묘지는 남북으로 된 “中”자 형의 대형 묘지가 발견된다. 즉 燕下都 M16이다. 이러한 묘는 길이 10.4미터, 넓이 7.7미터로 되어 있다. 사면은 불로 태워 이층으로 되어 있다. 戰國의 만기의 묘지는 일부 묘지에서 볼 수 있다. 수장 품은 대체로 이층에 놓여 있다. 이 시기의 발견된 것으로 두 개의 “中”자형의 흙 묘지가 있다. 모두 남북으로 묘지 통로가 있다. 그리고 일부 묘지의 벽에는 석회로 도벽하였다. 戰國 시기의 묘지의 풍속은 당장과 상장이 있다. 극히 일부에는 삼종이나 사종, 혹은 무장도 있었다.

2) 趙 문화 유적

趙國은 戰國의 초기에 건립되었다. 西周와 春秋시기 趙 씨는 晉國에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西周에서 春秋시기의 趙 씨의 묘지는 晉國의 묘지에서 살펴야 한다. 天馬-曲村의 유적지는 山西의 남부 臨汾지역 曲沃縣 동부와 翼城縣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天馬-曲村일대를 중심으로 된 이 지역의 유적지는 曲沃盆地的 북부 경계 지역에 있다. 북으로는 喬山, 동으로는 綿山과 鞏翔山, 남으로는 紫金山이 있다. 기타 지세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경사지어 있다.

1980-1989년에는 주로 天馬-曲村 유적지에 대해서 발굴하였다. 총 3700평에 달했다. 여기서 西周 春秋시기의 묘지 641개가 발굴된다. 차마 갱도 6개가 있다. 1992-2001에는 유적에 대한 晉侯 묘지에 대한 발굴과 정리를 한다. 그리고 총 晉侯 및 그 부인의 묘지 9조 19개와 부속된 수장 묘지를 발굴한다. 晉侯의 묘지 외에 天馬-曲村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중소형의 묘지들과의 거리는 1200미터 좌

우이다.

晉侯묘지는 부부가 합장된 묘지이다. 그중에서 두 조는 晉侯묘의 서측 외부에 있다. 나머지는 모두 晉侯묘지의 동측에 있다. M64의 晉侯邦父에는 두 개의 부인 묘지가 있다. 晉侯 중에 M93가 남북으로 두 개의 묘지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甲자형의 묘지였다. 晉侯부인의 묘지 M63은 중자형의 묘지이다. M102은 통로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甲자형으로 되어 있다. 통로는 M93의 북 통로가 계단 형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사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통로는 모두 묘지의 안쪽까지 연장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층의 윗부분까지이다. 그리고 묘지의 통로와 묘지 내의 각종 소장품이 있다. 수장하는 차는 해체하여 묘지에 넣는다. 수장하는 동물로는 개, 말, 소 등이 있다. 개는 일반적으로 묘실의 안측에 있다. 관에는 칠을 하고 외부에 다시 채색으로 도배한다. 어떤 관의 주위에는 작은 동으로 만든 고기 모형도 있다. 이는 아마도 관의 장식이라 볼 수 있다.

曲村의 북측 묘지의 중소형의 묘지는 모두 흙으로 된 묘지이다. 묘지의 입구는 장방형이다. 평균 면적은 4평에서 16평좌 우이다. 안측의 제일 큰 면적은 13평에 달한다. 묘의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수장하는 두 가지 이상의 도자기는 대형의 묘에 많이 있다. 두 가지 보다 적은 혹은 소장품이 없는 묘지는 주로 벽형이다. 이러한 묘지는 방향은 동서와 남북 두 가지가 있다. 묘지에서 각각 나뉘어져 있어 선명한 묘지 군을 이룬다. 묘지의 장법은 아래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 묘지에서 단 두 곳만이 사람을 수장하는 것이 있다. 23개의 묘지에는 개를 수장했다. 동서로 뻗은 묘지는 개를 수장하고, 남북으로 된 이층의 곳에서는 동으로 된 기물들이다. 春秋만기의 太原 金勝村의 晉國 趙경묘지는 하나의 장방형의 큰 묘지이다. 이 묘지는 세 개의 관이 있다. 거기에는 대향의 동으로 된 기물과 금석 악기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옥석 등도 있었다. 수장된 기물이 3천여 가지가 되었다. 그중에서 동으로 된 기물이 1402개였다. 동으로 된 예기는 99개에 달했다. 여기에는 정이 7개, 鬲, 취사 기물 등이 있었다. 묘지 주인은 누워 있었고 머리는 동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 명의 수장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에게 한 개의 관을 갖고 있었다. 수장품에는 동, 옥, 수정기 등이 있었다. 이 묘지의 다른 수장 품에는 차마 갯도가 있었다. 차갯도와 마갯도로 나뉘어져 있었

다. 차마 갱도는 동서로 14.8미터. 남북으로 12.6미터이다. 총 말을 44마리, 차는 15대가 매장되었다.

오늘의 邯鄲의 서측에 4키로 측의 百家村에는 戰國시기의 묘지군이 있었다. 이는 趙國의 묘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백가 촌의 戰國 묘지는 1957년에 이미 발굴한 바 있다. 1959년에 다시 작업하였다. 발굴된 戰國의 묘지는 규모는 대, 소, 중으로 나뉜다. 묘지는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입구가 비교적 크다. 아래 측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대부분은 2층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묘는 흙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모두 “五花土”이었다. 일부 묘지는 봉토와 적석으로 하였다.

이상의 고고학 자료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燕國과 趙國의 묘지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묘지의 규모에서는 燕國과 趙國이 모두 대, 중, 소규모의 유형이었었고 대형은 대체로 제후나 대부의 묘였다. 일반 통로가 있었다. 중소형은 통로가 없었다. 그리고 이층으로 되어 있다. 수장품은 묘지 주인과 관련 있었다. 장례 형식에는 모두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는 몸을 움츠리거나 옆으로 누워 있기도 했다. 대형 묘지의 규격과 수장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두 나라는 모두 후장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문헌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다. 대다수의 묘지는 중소형이었었고 많은 묘지에는 장구조차 없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빈부의 차이를 말해 주고 있다.

두 나라의 묘지에는 모두 많은 전차와 말을 발견하였다. 이는 두 나라가 모두 군사와 전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와 말은 매우 중요한 교통 공구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는 귀족들의 재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에 “영혼 숭배”와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귀족들은 죽은 후 대향의 차와 말을 자신의 묘지의 부근에 순장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묘지에 같이 순장하였다. 대향의 차와 말의 묘지의 발견은 다시 한번 당시 燕과 趙國이 후장의 풍속을 엿볼 수 있다.

비슷한 점 외에는 차이점도 있었다. 燕國은 비록 묘지에서 각종 순장개, 순장인이 있었고 그 수량도 차이가 있었다. 燕國의 순장인은 西周초기에 있었고 그 수량도 많지 않았다. 趙國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순장인이 있었다. 다시 말해 戰國에 진입한 趙國의 귀족들은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을 죽여 순장해야만 했다. 이는 趙인의 후장의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는 당시의 趙國의 장례 풍습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趙國의 재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瑠璃河의 西周 燕도성 유적지 묘지에서 商 문화의 요소, 周 문화의 요소가 당시의 토착 문화와 서로 결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燕國의 묘지의 비교적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趙國은 진의 제도, 중원의 문화적 요소에서 우세를 차지했다.

VI. 결 론

앞서 燕, 趙 문화의 여러 면에 대해서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람들은 종종 燕, 趙 문화의 특징을 일괄적으로 비분강개한 절개라고 한다. 그러나 燕과 趙의 문화가 풍속적 특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司馬遷은 일찍이 趙의 민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했다.

中山지역은 자원이 없고 사람은 많다. 沙丘일대에는 아직도 주왕이 남긴 은인들의 후대가 살고 있다. 백성들은 성격이 급하고, 투기를 좋아한다. 남성들은 종종 놀기만 한다. 낮에는 함께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밤에는 무덤을 판다. 가짜 돈을 만들기도 한다. 호색한 남성이 많으며 가무를 하는 예인들을 좋아한다. 여성들은 가야금을 즐기고, 신을 끌고 다니며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추파를 보내고 운수가 좋으면 후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각 제후국에 있는 심상이다.

(趙), 中山地薄人衆, 猶有沙丘紂淫地余民。民俗懷急, 仰機利而食。丈夫相聚遊戲, 悲歌慷慨, 起則相隨椎剽, 休則掘冢作巧奸治, 多美物, 爲倡優。女子則鼓鳴瑟, 沾屣, 遊媚貴富, 入後宮, 遍諸侯)⁹⁹⁾

또한

齊, 趙 지역의 주민들은 영리하여, 투기를 통해 재물을 얻었다.

(齊, 趙設智巧, 仰機利)¹⁰⁰⁾

趙國의 種과 代는 石邑이북인데, 匈奴과 인접하고 있어 종종 침입을 당한다. 백성들은 선량하고 강인하며, 호승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사 등의 업종을 선호하지 않았다.

(趙地的種和代“石北也, 地邊胡, 數被寇, 人民矜憤歧, 好氣任俠, 爲奸, 不事農桑”)¹⁰¹⁾

《鹽鐵論·通有》에는 趙國의 민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성들은 의지가 약하고, 정당한 직업을 갖지 않는다. 전야는 황폐되고, 가난해도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 남녀들은 모두 장식만 좋아하고 온종일 집에서 가무에만 열중한다.

99)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71.

100)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63.

101)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p.3270.

(然民淫好末, 侈靡而不務本。田疇不修, 男女矜飾, 家無門笏, 明琴在室)¹⁰²⁾

또한 趙國의 여성의 관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쁘게 단장하고 가야금을 틀면서, 긴 옷소매를 휘두르며 춤을 춘다. 춤추는 신을 신고, 예쁜 눈웃음을 지으면서 사람을 유혹한다. 천리 밖의 남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여들었다. 이들을 모집하여 재물을 얻는데 이용하였다.

(設形容, 揆鳴琴, 俞長袂, 躡利屣, 目挑心招, 出不遠千裏, 不擇老少者, 奔富厚也)¹⁰³⁾

남성의 관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종종 모여서 놀기도 하고 비분강개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낮에는 같이 사람도 죽이고 재물도 뺏는다. 밤에는 무덤을 판다. 가짜 골동품을 만들기도 하고, 금전을 몰래 주조하기도 한다.

(起則相隨椎剽, 休則掘家作巧奸治)¹⁰⁴⁾

한편 《漢書·地理誌下》에서는 燕國의 풍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풍속은 우매하고 용맹한 것이다. 심사숙고가 필요하여 길으로 보기에 압삼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만의 장점도 있다. 즉 급한 사람의 처지를 해결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燕丹이 남겨 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其俗愚悍少慮, 輕薄無威, 亦有所長, 敢於急人, 燕丹遺風也)¹⁰⁵⁾

이는 燕國의 남성들이 매우 순박하고, 趙國의 사람들처럼 간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친구를 위해서는 위협도 무릅쓴다고 한다. 연나라 사람들의 풍속에는 친구를 중시하고 여성을 경시하는 풍속이 있었다. 《漢書·地理誌下》에 살펴보면

薊地은 남쪽은 齊, 趙國과 인접하고, 발해와 등근 碣石 사이의 큰 도시이다. 애초에 태자 단은 용사를 배양하고, 후궁의 미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이는 그 지역의 풍속으로 변모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부인을 같이 동침하게 한다. 결혼 날의 밤에는 남녀는 구별이 없다. 오히려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102) 上揭書, 《鹽鐵論·通有》, p.5.

103)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3271.

104) 上揭書, 《鹽鐵論·通有》, p.4.

105) 上揭書, 《漢書·地理誌下》, p.1657.

러한 풍습이 점차 적어졌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다.

(薊, 南通齊, 趙, 勃, 碣之間壹都會也。初太子丹賓養勇士, 不愛後宮美女, 民化以爲俗, 至今猶然。賓客相過, 以婦侍宿。嫁取之夕, 男女無別, 反以爲榮。後稍止, 然終未改¹⁰⁶⁾

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燕의 太子丹이 미인의 손을 끊어 荊軻에게 선물했다는 설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모두 燕國 사람들이 친구를 중시하고 여성을 경시한다고 볼 수 있다. 趙에서도 平原君이 미인을 죽이고 문객을 남겨 둔 사건이 있지만, 여성을 경시하는 풍속은 없었다.

물론 양자는 습관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점도 많았다. 예를 들어 두 나라는 모두 군사를 중요시했다. 《史記·貨殖列傳》에 살펴보면

燕國의 도성은 발해와 둥근 비석산 사이의 도시이다. 남쪽으로는 齊, 趙와 인접하고, 동북으로는 胡인들과 인접하고 있다. 上谷에서 遼東에 이르기까지 지역은 광활하고, 인구는 적다. 많은 침입을 당했으며 민속은 대체로 趙와 代 지역과 비슷하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체로 흉악하고 사고를 잘 하지 않는다.

(夫燕亦勃, 碣之間壹都會也。南通齊, 趙, 東北邊胡。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 大與趙, 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¹⁰⁷⁾

라고 하였다.

燕과 趙는 모두 무를 숭상했다. 이는 주로 북방의 야만 민족들의 빈번한 침입 때문이다. 야만 민족들은 “전쟁에서 죽는 것을 좋은 것이라 하고, 병사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 보았다¹⁰⁸⁾” 燕과 趙의 북부는 야만족과 결합하여 잡거하였는데, 이러한 무예를 존승하는 풍기가 들었다. 趙國의 趙武靈王의 “胡服騎射” 개혁은 趙國의 군대가 일약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燕國의 국왕이 집권때 樂毅이 齊와 秦을 토벌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상무의 정신은 보다 진일보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가 무를 숭상하는 것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趙國은 군사를 중요시하면서 농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燕國 군사력에만 신경을 썼다. 이는 양자가 제조한 화폐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趙國은 주로 농업 공구를 상징하는 화폐를 제조했고, 燕國은 주로 병기를 상징하는 화폐를 제조했다.

106) 上揭書, 《漢書·地理誌下》, p.1657.

107) 上揭書, 《史記·貨殖列傳》, p.1723.

108) (宋) 範曄, 《後漢書·西羌傳》, 北京, 中華書局, 1965, p.2869.

이를 통해 燕과 趙의 문화의 특징에 차별됨을 알 수 있다. “비분강개한 절개”의 정신은 燕 문화와 보다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荊軻에서 燕의 太子丹과 高漸離 등 사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귀속으로 여기는 비장한 포부를 엿볼 수 있었다. 燕國의 지역은 검 하나로 백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燕國 지역은 대체로 곤궁했고 그 문화의 정서는 애원과 비장한 감정으로 충만했다¹⁰⁹⁾.

또한 “비분강개한 절개”의 감정은 그들의 심리적인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는 경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정치적인 지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일련의 충격, 역전, 승화 등을 거쳐서 비분강개한 절개의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¹¹⁰⁾ 기개가 높고 협객을 맡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소박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자강불식하는 것은 燕 문화의 제일 선명한 정신 특징이다.

그러나 趙國의 문화는 三晉에서 비롯되었다. 晉文公이래 장기적으로 중원의 정신을 많이 흡수했다. 사상적으로는 효율을 강조하는 법가, 병가, 중횡가 등이 있다. 그리고 번영된 농업과 공상 업의 토대가 있었다. 趙國의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른바 높은 지상과 대국의 품위이다. 이는 사회경제의 번영으로 인한 일종의 문화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바람이 서술하고 역수가 소슬하니,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를 부른 형가는 燕의 비굴하고 나약하며 격동적인 반항 정신을 표시한다면 趙 문화는 의박운천(義薄雲天)의 영웅 심경을 표시한다. 언제든지 영웅이 필요하고 전쟁이 많은 고대도 마찬가지다. 태평하고 조화로운 현대에도 영웅주의란 단어는 소홀했지만 그의 정신 내핵은 없어지지 않았다. 시대의 진보와 인성의 개선은 모두 영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냥 각자 시대에서 영웅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趙문화가 체현한 덕으로 인재를 다스리는 등 우수한 문화 유전자는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덕은 일의 성사 기초이자 사업이 성공하는 본전이다. 오직 덕성이 높고 재능이 뛰어나야 사람의 경복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강대한 흡인력,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산생할 수 있으며 모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臯陶, 伯益, 趙盾, 趙簡子, 趙襄子, 武靈王와 惠文王은 趙國 역사에서 제일 현명하고 능력 있는 군주 혹은 왕이다. 그희들은 덕으

109) 楊玉生等, 《燕文化》, 北京, 方誌出版社, 2005, p.76.

110) 上揭書, 《燕趙文化》, p.294.

로 사람 됨됨이를 지키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여 사업을 이루었다. 진취
적정 신은 趙 씨 발전의 동력 원천이다. 이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는 품격이 바로
趙國으로 하여금 툼바구니에서 생존하게 하고 발전하며 작은 데로부터 커지고
약한 데로부터 강해져 찬란하고 휘황한 趙 문화를 창조하게 하였다. 감정을 중시
하고 의리를 숭상하며 덕으로 인재를 통솔하는 것과 개척하고 혁신하는 것은 조
문화의 제일 선명한 정신적 특징이다.

【參考文獻】

古籍文獻

- (漢)司馬遷,《史記》,北京:中華書局,1982.
- (清)梁玉繩,《史記誌疑》,北京:中華書局,1981.
- (漢)班固,《漢書》,北京:中華書局,1962
- (漢)孔安國傳,(唐)孔穎達等正義,《尚書正義》,北京:中華書局,1980.
- (漢)毛公傳,(東漢)鄭玄箋,(唐)孔穎達等正義,《毛詩正義》,北京:中華書局,1980.
- (漢)鄭玄註,(唐)孔穎達等正義,《禮記正義》,北京:中華書局,1980.
- (漢)鄭玄註,(唐)孔穎達等正義,《周禮註疏》,北京:中華書局,1980.
- 楊伯峻編著,《春秋左傳註》,北京:中華書局,1981.
- (三國)韋昭註,《國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東漢)宋衷原註,(清)秦嘉謨等輯,《世本》(八種),北京:商務印書館,1957.
- (西漢)劉向集錄,(東漢)高誘註,《戰國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
- 馬王堆帛書整理小組整理註釋,《戰國縱橫家書》,北京:文物出版社,1976.
- (漢)陸賈著,王利器撰,《新語校註》,北京:中華書局,1986.
- (漢)陸賈著,嚴振益,鐘夏校註,《新書校註》,北京:中華書局,2000.

專著及考古報告

- 成曉軍,宋素琴,《燕趙文化縱橫談》,北京:中國文聯出版社,1999.
- 誌編委會編,《中華文化通誌·地域文化》(第2典),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8.
- 辛彥懷,康香閣編,《趙文化研究》,保定:河北大學出版社,2003.
- 沈長雲,魏建震,白國紅,張懷通,石延博,《趙國史稿》,北京:中華書局,2000.
- 邯鄲市歷史學會,《趙國歷史文化論叢》,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89.
- 河北省文物研究所,《燕下都》,北京:文物出版社,1996.
- 傅振倫,《文錄類選》,北京:學苑出版社,1994.
- 蘇天均主編,《北京考古集成》,北京:北京出版社,2000.
- 陳平,《燕史紀事編年會按》,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5.

- 王彩梅,《燕國簡史》,北京:紫禁城出版社,2001.
- 北京市文物研究所編,《北京文物與考古》,北京:燕山出版社,1991
- 陳平,《燕國風雲八百年》,北京:北京出版社,2000.
- 秦進才,《燕趙歷史文獻研究》,北京:中華書局,2005.
- 童書業,《春秋左傳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0.
- 陳夢家,《六國紀年》,上海:學習生活出版社,1955.
- 楊寬,《戰國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0.
- 繆文遠,《戰國策考辨》,北京:中華書局,1984.
- 北京市文物研究所編,《琉璃河西周燕國墓地》,北京:文物出版社,1995.
- 北京市文物研究所編,《北京考古四十年》,北京:燕山出版社,1990.
- 李學勤,《東周與秦代文明》,北京:文物出版社,1991.
- 於省吾編,《商周金文錄遺》,北京:文物出版社,1957.
- 陳光匯編,《燕文化研究論文集》,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
- 陳光唐,王昌蘭,《邯鄲歷史與考古》,北京:文津出版社,1991.
- 趙樹文,燕,《趙都考古探索》,北京:當代中國出版社,1993.
- 張午時,馮誌剛,《趙國史》,保定:河北人民出版社,1996.
- 張建華,左金濤,《邯鄲歷史大事編年》,北京:中國檔案出版社,1999.
- 孫繼民等,《邯鄲簡史》,北京:中國城市經濟社會出版社, 1990.
- 趙洪恩,李寶席主編,《中國傳統文化通論》,北京:人民出版社,2003.
- 郭彥崗,《中國歷代貨幣》,天津:天津教育出版社,1991.
- 李元慶,《三晉古文化源流》,太原:山西古籍出版社,1997.
- 昭明,馬利清,《中國古代貨幣》,天津:百花文藝出版社,2007.
- 鄭家相,《中國古代貨幣發展史》,北京:三聯書店出版社,1958.
- 王毓銓,《中國古代貨幣的起源和發展》,北京:科學出版社,1957.
- 許自然編著,《中國黃土地區歷代墓葬及考古基建鑽探》,北京:地質出版社,1988.
- 楊寬,《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3.
- 馬承源,《中國古代青銅器》,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2.
- 杜迺松,《古代青銅器》,北京:文物出版社,2005.
- 李學勤,《東周與秦代文明》,北京:文物出版社,1984.

張京華,《燕趙文化》,沈陽:遼寧教育出版社,1998.

考古簡報及學術論文

侯廷生,趙文化,〈燕趙文化等概念的文化邊界辨析〉,河北建築科技學院學報,2005,(3)

楊玉生,〈燕文化及其在中國傳統文化中的地位〉,河北大學學報,2002,(1).

崔誌遠,葛振江,〈燕趙風骨考論〉,河北師範大學學報,2002,(5).

楊玉生,〈燕文化的價值和對中國古代文化的影響〉,河北大學學報,2005,(6).

唐曉峰,〈薊,燕分封與北京地區早期城市地理問題〉,中國歷史地理論叢,1999,(1).

劉緒,趙福生,〈琉璃河遺址西周燕文化的新認識〉,文物,1997,(4).

張建華,左金濤,〈趙文化縱論〉,邯鄲師專學報,1999,(1).

辛彥懷,李廣,〈關於趙文化研究的幾個問題〉,邯鄲師專學報,2003,(4).

聶樹鋒,〈燕趙文化三題〉,石家莊師範專科學校學報,2004,(2).

吳啓軍,劉德彪,〈燕下都瓦當紋飾分期述補〉,文物春秋,2003,(5).

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省易縣燕下都第13號遺址第壹次發掘〉,考古,1987,(5).

吳啓軍,劉德彪,〈春秋戰國時期燕國瓦當紋飾的初步分析〉,文物春秋,2002,(5).

甌燕,〈試論燕下都城址的年代〉,考古,1988,(7).

許宏,〈燕下都營建過程的考古學考察〉,考古,1994,(4).

陳光,〈東周燕文化分期論〉(續),北京文博,1998,(5).

許明綱,〈大連地區燕文化遺跡〉,文物春秋,1997,(2).

杜學德,〈地方風物和口碑中的趙文化資料〉,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2004,(2).

孫月,〈河北的諺語與燕趙文化〉,河北理工大學學報,2005,(3).

曲英傑,〈周代燕國考〉,歷史研究,1996,(5).

董林亭,〈趙文化源頭辨識〉,邯鄲師專學報,2001,(2).

秦進才,〈趙國歷史文化研究論著目錄〉(1987-2001),邯鄲師專學報,2004,(2).

湯錦程,藺朝國,〈邯鄲地名考〉,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2002,(2).

樂慶森,尹建兵,〈淺釋“邯鄲”〉,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2004,(4).

李學勤,〈北京,遼寧出土青銅器與周初的燕〉,考古,1975,(5).

曲英傑,〈燕都燕城及臨易考〉,河北學刊,1996,(6).

陳平,〈燕毫與薊城的再探討〉,北京文博,1997,(2).

- 俞偉超.燕下都遺址[A].見: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86.
- 欒豐實.太昊和少昊傳說的考古學研究.中國史研究,2000,(2).
- 唐嘉弘.論趙文化及其歷史地位.河北學刊,1988,(1).
- 孫繼民,郝良真.試論戰國趙文化構成的二重性.河北學刊,1988,(2).
- 郝良真.趙文化:淵源,特點,影響.社會科學論壇,1991,(3).
- 沈長雲.關於趙國史研究的幾個問題.邯鄲師專學報,1999,(2).
- 李元慶,高秀銀.先秦三晉文化思想探析.晉陽學刊,1987,(6).
- 黃勤,張春.高度發展的趙文化及其歷史價值.社會科學論壇,1991,(1).
- 劉式金.趙文化及其考古遺跡覓蹤.河北大學學報,1992,(4).
- 唐嘉弘.論趙文化及其歷史地位.河北學刊,1988,(1).
- 王飛.全國趙文化學術討論會簡述.歷史教學,1988,(1).
-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河北邯鄲百家村戰國墓.考古,1962,(12).

論文發表綱要

隨着中國國內京津冀一体化的開發與發展，燕趙文化也成爲一個熱點問題，但大部分的研究都是將燕國和趙國，也就是現在的河北省和北京市、天津市作爲一個整體來研究分析，在論文選題的最初階段，本文也將京津冀作爲一個整體來研究和思考，但隨着研究的深入，在閱讀了大量的參考文獻和史書後發現，無論是古時候的燕國和趙國，還是現在的河北、北京、天津三地，雖然它們的地理位置是重疊的，但無論在社會經濟、思想觀念還是政治制度上它們都有着自己的特点，燕文化和趙文化都是有着顯著差別的。本文選擇將燕趙地方文化的淵源爲主要研究方向，同時將時間跨度限定爲春秋戰國時期，也就是先秦時期，因爲這段時期是燕文化和趙文化形成的重要時期，對今後燕趙文化各自不同的發展起了重要的作用。還有我的家鄉是河北邯鄲，所以對於故鄉的傳統文化有着濃厚的興趣和比較深刻的理解。

本論文共分爲三大部分：

第一部分爲緒論，主要概述了本文研究的選題背景、研究現狀、研究方法。

第二部分是正文，也是本論文的重点，共分爲四階段：

1，從整体上對燕趙文化進行了概述，並限定了燕趙文化的範圍，爲後面燕趙文化的對比做鋪墊。

2，是對燕文化與趙文化各自形成的原因進行分析。首先，介紹燕、趙文化各自的地理位置範圍，再從風土地理的角度分析兩種地域文化各自形成的原因。其中風土地理既包含了自然地理因素，也包括了人文因素。在文章的論述過程中，對它們風土地理的不同因素進行比較分析。

3，闡述燕文化與趙文化各自的淵源。燕、趙文化的發端遠在戰國之前，別有源頭。文章利用大量考古與文獻資料考證分析，燕文化是承繼當地的土著文化與殷文化發展而來；趙文化則是由晉文化的母體增殖裂變而來，與周文化一脈相承。夏、商、周三代的文化發展實際上是平行和交叉的，因此得出的結論是，燕文化與趙文化各有淵源，包含的內容也不盡相同。

4，主要論述燕文化與趙文化的形成與發展，以及燕國與趙國的建立。燕、趙文化的形成、發展與其國家的建立、發展密切相關。文章從燕國與趙國的建立入手，論述其立國的過程，從中折射出燕文化與趙文化各自的發展脈絡。這部分時間跨度比較

大，文章力圖將燕、趙文化各自的發展脈絡論述清晰，從其歷史積淀中分析兩者的文化差異。

論文的最后是結語部分，總結文章內容，通過燕趙地方文化的淵源分析，指出燕文化與趙文化有相同之處，但在很大程度上是不同的，有各自的內涵與特征，研究燕趙文化要區分燕文化和趙文化的區別，把燕趙作為一個整體去一概而論是不合理的。